

<b>코스피</b> 2468.65 (+40.08)	<b>코스닥</b> 738.94 (+6.59)
<b>금리</b> (미국 9년) 3.273 (-0.012)	<b>환율</b> (원-달러) 1230.70 (-1.00)

[경제종합]  
글로벌 악재에도  
현대차 매출액  
142.5조 '신기록'  
06



## M-커버스토리

# 일손 부족·CEO 고령화... 韓 제조 中企 무너진다

### 위기의 중소기업

생산가능·경제활동인구 급감  
뿌리산업 인력난·고령화 심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속제  
3高 따른 경기침체로 생존 위협

산업을 떠받쳐야 할 대한민국 제조 중소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는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고 내국인이 외면하는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게다가 창업세대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경직된 기업승계 제도 때문에 후세대에 넘겨주는 것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분야는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 고사될 위기에 직면해있다.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나가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나마 대기업 협력사라면 모를까 중소기업 단독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은 안감생심이다. 개별 국가가 높이 쌓아올리고 있는 무역장벽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안겨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중심으로 한 '3고(高)'는 같길 바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몸집이 큰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상생' 이슈도 여전한 숙제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초변화 대전환의 시대에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구성하는 기업인과 직원들의 협력, 기업간 협력, 기업과 정부의 협력, 국가간 협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기업은 기능 조직과 미션·프로젝트 조직이 씨줄과 날줄처럼 결합한 협력 중심의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전략, 조직, 인사를 전면 혁신해야 하며 국가도 초변화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 전

략, 정부 조직,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는 늙고 일할 사람은 없다

기업이나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한 15~64세 인구는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25년에는 3544만6000명으로, 2030년엔 다시 3343만7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320만2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도 2025년에 2911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0년엔 2875

만800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할 사람도, 제품을 살 사람도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업종별 취업자도 희비가 엇갈리며 10년 사이 서비스업은 113만명 늘겠지만 제조업은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비스업 중에선 보건복지, 숙박음식, 정보통신, 공공행정 분야의 취업자 증가세가 눈에 띈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 외에 농업·어업, 건설, 전기·가스 등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 경영자도 늙어가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드물고 99%가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중소기업은 더욱 심각하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하얗게 변한 서울

서울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63아트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눈이 내리고 있다. /뉴시스

## '민간금융회사' 우리금융 차기회장에 내부출신 유력

오늘 임추위서 쏠리스트 선정  
이원덕·박화재·임종룡 예상  
모피아 반대로 내부출신 무게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왼쪽부터). /각사

우리금융 차기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출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 반대 기류와 우리금융이 완전 민영화를 이룬 민간금융회사란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오는 2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1차 후보군(롱리스트 7명) 가운데 2~3명을 차기 회장 2차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2차 후보군에는 내부출신은 물론 외부출신이 포함될 전망이다.

내부에선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 ▲박경훈 우리금융캐피탈 사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외부 인사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유일하다.

임추위는 평판 조화 결과를 반영해 2차 후보군을 확정하고 다음 달 면접과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단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다음달 초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 금융권에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보의 경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게감을 지닌 세 사람으로 압축될 것이라 분석이다.

결국 내부 대 외부의 대결이 예상된다. 금융위원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외부출신과 우리금융 사정에 밝은 내부출신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우리금융노조는 모피아 반대를 주장한다. 더이상 정부 소유가 아닌 민간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우리금융노조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조직 상황을 잘 알고 영업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출신 인사로 내정해 관치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 승계를 이뤄내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

## 지난해 韓 경제 2.6% 성장... 2년만에 최저

경기둔화에 수출 증가세 둔화  
에너지값 급등에 수입은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0.7%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4분기 이후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3.5%, -0.7%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해 수출은 2.9% 상승해 전년(10.8%)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 6839억5000만달러로 전년(6444억달러) 대비 6.1% 늘었다. 코로나 진정세 이후 보복소비 등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며 1~9월까지는 월 최고 수출실적을 이어갔지만, 10월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대비 3.5% 늘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

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수입액이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4.4% 증가해 2008~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가 반등했던 지난 2010년(4.4%)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반적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전반적으로 살아난 영향이 컸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강제징용 배상안에 '헌법위반·굴종의 교' 비판 나와  
▲ 이재명, 정읍서 검찰수사 관련 "사필귀정 믿어" /사진 뉴시스

▲ 유엔사 "北 무인기 침공, 정전협정 위반"  
▲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남은 변수는 '유승민'



▲中海킹그룹, 우리말학회 등 국내 학술기관 해킹  
▲ 박홍근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책임 물을 것" /사진 뉴시스

# 尹 “헌법 수호하는 기관… 법·원칙 바로 선 나라 만들어야”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공정위 역할, 공정경제 환경서 자유시장 경제 원칙 잘 지키는 것”

“법제처,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 해석·규정 만드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며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을 예로 들면서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과 거래처와 많은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에 더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 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제처를 향해 “입법과정에 있어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미래변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 정책, 반(反)법치행위 강력 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기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의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 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

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 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 지원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가스 할인 2배로

정부, 117만 가구 대상 한시적 지원 160만 가구에 가스요금도 2배 할인

정부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 가격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분기 가스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

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추가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 상까지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보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각 나라는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주안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공공요금 인상… 기대인플레이션 3.9% 소폭상승

한은,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 0.5p 오른 90.7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이달 3.9%를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다음달 중 교통요금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가격지수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고,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이 시행되면서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다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앞으로 1년 뒤의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지표로, 중앙은행과 정책당국이 예의주시하는 물가지표다.

근로자가 앞으로 물가상승을 예상하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비용 인상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실제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게 된다. 이른바 ‘임금발 물가상승(wage push inflation)’인데,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 전망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셈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 들어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12월 3.8%였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이달 3.9%로 0.1%p 상승했다.

황희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공공요금이 인상



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글로벌 경기와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불확실성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소비자심리도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0.5p 오른 90.7로 나타났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값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으로 해석된다.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소비자 심리지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금리수준전망은 전월 대비 1p 하락한 132를 기록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기준금리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영향이다.

반면 주택가격지수는 6p 상승한 68로 집계됐다. /나유리 기자 yu115@

## 교역조건 악화에 실질 국내총소득 1.1% 하락

>> 1면 ‘지난해 韓 경제 2.6%’서 계속

지난해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을 보여주는 소득지표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1%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GDP 성장률을 한참 밑돌았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과 반도체 경기 하락등이 겹치며 수출, 민간소비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줄며 0.4%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늘었다.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0.7% 성장하고,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2.3%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줄었고, 수입은 원유,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4.6% 감소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 등이 증가

했지만,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5% 증가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1%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1.9% 늘었다. 서비스업은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나유리 기자

# 불확실성 커지며 수출·소비 '흔들'... 하반기부터 회복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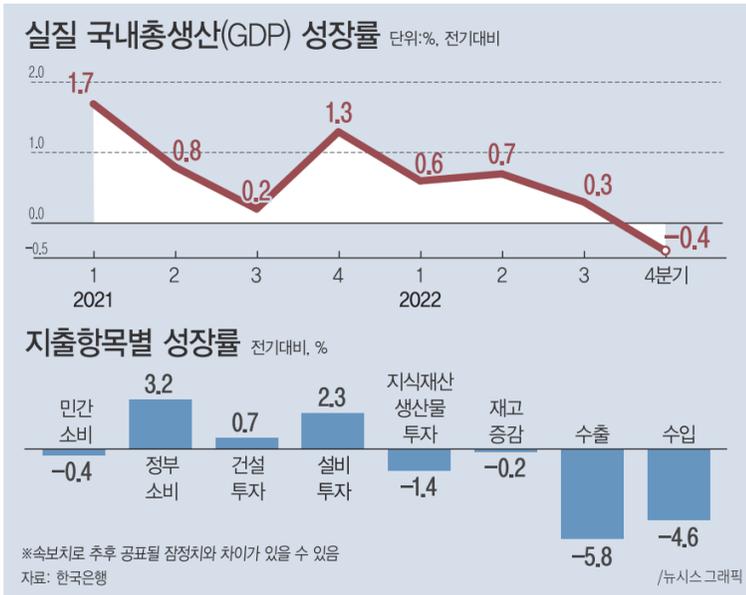
지난해 4분기 GDP -0.4%... 역성장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지속 가능성  
中 리오프닝 효과 등 하반기 반등 전망

지난해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2.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GDP는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이달까지 반도체 등 주요수출 품목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비춰졌을 때 1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상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올해 1분기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나 지어 따라 경제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 ◆수출·민간소비 무너지자 경제성장률 직격타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4분기 -0.4%를 기록했다. 위태롭던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수출부진에 민간



소비 약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0.5%) 감소했던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이후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돼 2분기 2.9%, 3분기 1.7% 증가했다. 그러나 8월 이후 고물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4분기 민간소비는 -0.4%로 하락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억눌려 있던 소비(웬트업)가

증가하면서 2~3분기 민간소비를 회복시켰지만 (4분기)조정을 받았다"며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사수요가 줄면서 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줄고, 10~11월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해 의료 신발 등 재화 소비도 줄었다"고 말했다.

수출은 주력품목이 부진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1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선박은 182억달러로 20.8% 줄었다.

민간소비 약화와 수출부진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가 메웠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에서 4분기 3.2%로 증가했다.

황 국장은 "지난해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이어졌던 예산집행이 4분기에 이뤄지면서 물건비 지출이 높아졌고, 독감이 유행하면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소비가 증가하며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는 설명이다.

##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효과로 반등 기대

문제는 올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조정했다. 1%대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8.8%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소비가 증가한다는 보장도 없

다. 지난해 국내총소득은 1분기 0.5%에서 2분기 -1.1%, 3분기 -1.3% 하락하다 4분기 1%로 회복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5%대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도 3.9%로 상승하는 추세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은 우리경제가 올해 1%에도 못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 ING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0.6%로 제시했고 노무라증권은 -0.6%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초 주요 IB 9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평균 1.1%에 그쳤다.

한은은 경기침체 우려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황 국장은 "1분기는 가능하기 어렵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소비나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반도체 과잉공급 부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경기침체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추경호 "3주택자 보유자 종부세 완화,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할 것"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비상경제장관회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 밝혀 "하반기 갈수록 경제회복 빨라질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포함 공익성의 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2.7%로 낮추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가 어렵다면 1분기에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등을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이

상 보유한 경우 중과 누진세율 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2.7%를 적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SH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하나를 보유한 실수요자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이전 주택 처분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세제 혜택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4% 역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로 경기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2분기(-3.0%)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1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며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작년 4분기 기저효과와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플러스 성장하겠지만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 1000개사를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연구개발(R&D) 등의 목적으로 기업당 최대 109억원을 지원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올해 GDP 성장률 1.7% 추정... 기준금리, 현재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 될 것"

## 자본시장연구원 시장 전망 세미나 "누적된 금리인상 효과 지켜봐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둔화하고, 기준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은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 밝혔다.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상반기에는 민간 소비의 모멘텀 축소,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경기 둔

화 정도가 다소 클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는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며 "다만,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물가는 3.4% 상승해 전년보다 오름세가 둔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가격 인상 등 기존 가격 인상 요인이 반영되면서 4.2%의 상승률을 나타내다 오름세가 진정되며 하반기 상승률은 2.6%로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국내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3.5%에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봤다.

백인석 거시금융실장은 "기준금리가 수요둔화를 유발하는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돼 누적된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단, 대내외 금리 인상 경로, 국내 실물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하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본원은 올해 거시경제 주요 이슈로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 기대의 괴리 ▲글로벌 물가 불확실성 및 고금리 지속

가능성 ▲국내 가계 및 기업부채 위험 ▲부동산시장 위축 지속 등을 꼽았다.

백 실장은 "미국 경기 둔화 심화, 중국 경제 정상화 지연, 지정학적 갈등 심화 및 국제원자재 가격 불안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등 주요국의 정치·경제적 리스크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해 금융시



26일 여의도 금투센터 볼스홀에서 열린 '2022년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백인석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백미경 기자

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취약 가계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미경 기자 mikyung96@

# 먹구름 드리운 中企 수출 인력난·가업승계 제도 등 위기 타개 묘안 ‘절실’



/유토이미지

>> 1면 ‘위기의 중소기업’서 계속

## 중소기업 수출 동력 ‘약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약 603만개 사업체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60세를 넘은 곳은 23.8%(144만개)로 집계됐다. 이를 2013년(4.4%)과 비교해보면 7년 사이 19.4%포인트(p)나 증가한 수치다. 2013년 당시 사업체수는 약 368만개로 7년 동안 235만개 가량이 늘었다.

대표자의 전체 연령대 중 50대(32.5%)가 가장 많은 가운데, ‘고령자’ 기준인 65세 전후의 나이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70세가 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2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가업승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관련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하고 중소기업들에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 칠순 넘은 CEO 2만명 달해 경영자·직원들 모두 고령화 中企 가업승계 뜨거운 감자

우리나라사업체의99%는 중소기업이다.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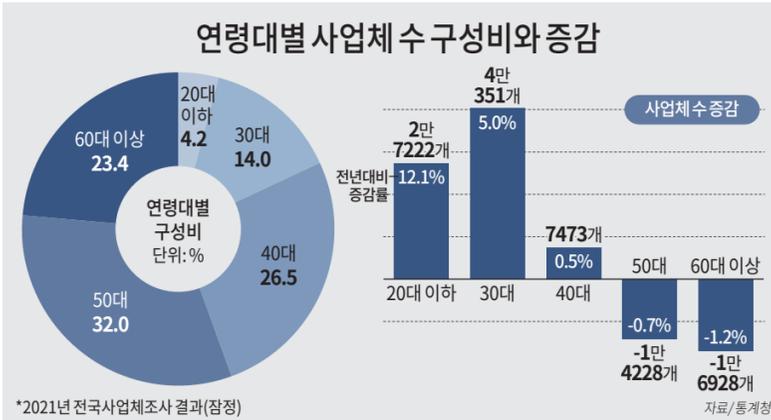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분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 포함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발간한 ‘2021 뿌리산업 백서’에 따르면 업계 종사자 51만6697명 가운데 62.9%가 40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20~30대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은 계속 늘어나며 뿌리산업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할 사람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선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 뿐만 아니라 직원도 고령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사업체를 2·3세에게 물려주는 승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가족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는 “국내의 할 것 없이 가업승계 대상은



연령이 30년 넘는 장수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고용 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경제성장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섭 교수는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업의 92%, 국내총생산(GDP)의 49%, 노동력의 60%가 승계대상기업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프랑스, 독일, 영국도 60% 이상이 승계해야 할 기업으로, 이들 나라에서 승계 대상 기업은 전체 국민총생산(GNP)과 노동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기업은 승계자의 능력과 경쟁력,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후 발생할 사회비용 등을 고려해 혈연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승계할지, 아니면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줄지 등을 결정하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획기적 제도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를 조사해 이달 중순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가 ‘내국인 구인 애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균 5.4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제도 관련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마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등이 1·2·3순위로 꼽혔다.

주영섭 교수는 “요즘 중소기업 취업은 ‘아르바이트 다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더라.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법도

모두 ‘사람’으로 귀결된다. 가장 먼저 기업인이 바뀌어야 한다. 직원은 비용이 아니다. 기업인은 직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해야 한다. 직원과의 성과공유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렇게하면 중소기업에도 사람이 몰린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하락 수출 중단 기업도 꾸준히 늘어 정부, 中企 수출 지원방안 마련

### ◆활력 제고위한 수출 ‘빨간불’…정부도 대책 마련 ‘부심’

중소기업 활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바로 수출이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220억 달러였던 경상수지는 올해엔 210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었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해 6.6% 늘었던 통관수출은 올해엔 -4.5%, 통관수입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6.4%로 각각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수출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무역은 코로나19 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미·중 갈등 양상 등 핵심 변수에 따라 수·출입이 등락을 보일 전망이다. 물론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상존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수출은 전년보다 4% 감소한 6624억 달러, 수입은 8% 줄어든 6762억 달러에 각각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수지는 138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수출은 2022년 예상치(6900억 달러)와 같은 수준으로 제자리 걸음을, 수입은 7350억 달러

(2022년 예상치)보다 10% 줄어든 6615억 달러로 추산됐다. 무역수지는 2021년엔 293억 달러 흑자였던 것이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서며 -450억 달러(예상치)를 기록했다.

어쨌든 올해 수출은 좋지 않았던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다.

선방했던 중소기업 수출도 위축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117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치는 1155억 달러(2021년)였다.

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2022년 중소기업 월별 수출액이 상반기엔 모두 플러스(+)였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8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별 중소기업들의 수출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2019년에 약 9만5000개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4900개(2020년)→9만2114개(2021년)→9만2578개(2022년)로 주춤하고 있다.

내수에 치중하다 수출을 시작한 수출 신규기업수도 감소하거나 거의 정체 수준이다. 수출을 했다 멈춘 수출 중단기업 숫자도 전체 수출기업의 25% 이상씩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수출국 다변화(+N) 프로젝트 추진 ▲내수기업 세계로 1000+ ▲글로벌 전진기지 확대 ▲무역장벽 부담 완화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촉진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 등이 담긴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50%(2019년 39%), 수출액 1500억 달러(2022년 1175억 달러), 수출국 다변화 55%(2022년 44%),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기업 3000개사(2022년 2274개사)를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2:05

[ Web발신 ]  
 [OO보건소] 031-XXX-XXXX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안내드립니다  
 시간 : 10월 5일 수요일 19:00~20:30  
 장소 : 보건소 2층 대강당  
 선착순 참여로 참석 여부 회신주세요

오후 2:06

아이와 함께 참석이 가능할까요?

오후 2:06

네. 아이 동반도 가능합니다

[OO보건소]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 특강!**  
 시간: 10월 5일 수요일 19:00~20:30  
 장소: 보건소 2층 대강당  
 \*아이 동반참여 가능

오후 2:07

네~ 참석할게요



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원하신다면?

**★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이제, 사용하던 사무실 번호 그대로 손쉽게 문자업무 하세요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양방향문자 | kt enterprise | 문의처 080-258-0303  
 KT 화선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 enterprise.kt.com  
 수원특례시 포함 100여개 지자체 및 기업 도입 중 (2022.09.30일자 기준)

# 현대차, 글로벌 악재에도 거뜰... 매출액 142.5조 '신기록'

영업이익 9조8198억으로 늘어  
총 판매량 394만2925대 기록  
올해 전기차 판매목표 83만대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경영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이 142조527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9조8198억원으로 47.0% 늘었다.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대 기록은 매출의 경우 2021년에 기록한 117조6106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012년 8조4406억원이었다.

순이익은 전년 보다 40.2% 증가한 7조9836억원, 총판매량은 394만2925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올해 부품 공급 개선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제네시스 SUV 등의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에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현대차 아이오닉 6.

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세계 자동차 시장 수요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대기 수요 등으로 판매량 성장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우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친환경차 선호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전기차 판매목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83만대로 설정했다”며 “주요 신차로는 신형 코나 E

V와 아이오닉 5N 등이 있으며, 아이오닉 6가 글로벌서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공급 이슈와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며 “올해 전기차 시장은 부품 공급 이슈 등에서 비교적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둔화와 보조금 축소, 금리인상 등으로 수요는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권역별 전기차 신차 출시 시점도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상반기 신형 코나 EV를 출시한다. 유럽에서는

1분기부터 아이오닉 6의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 신형 코나 EV와 아이오닉 5N은 하반기 출시된다. 미국에서도 1분기 아이오닉 6를 출시하고 하반기 신형 코나 EV를 내놓는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회피를 위해 5% 미만이었던 리스(임대)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리스로 인해 하락이 우려되는 중고차 가격 방어를 위해 인증 중고차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 아이오닉5

의 미국 판매를 올해 3만6000대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대차는 2024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 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순이익 창출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생산, 배터리 소싱(대의 구매) 등 다방면을 검토해 조지아 공장의 조기 생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IRA 관련 대응은 구체적인 법안이 발표되는 3월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2023년 연간 기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며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양산 차종 수 증가, 미국 조지아 신공장 건설 본격화 및 지속적인 미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R&D 투자 4조 2000억원 ▲설비투자(CAPEX) 5조 6000억원 ▲전략투자 7000억원 등 총 10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2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연간 배당은 중간 배당 1000원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주당 7000원으로 책정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급매 문의 늘었지만 실제 거래는 아직”

### 부동산 현장 르포

#### (2) 서울 월계동 아파트

정부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기대감  
이자 부담 줄어야 거래절벽 해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발표 이후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늘긴 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찾아간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 중개업소 대표는 “규제지역 해제와는 별개로 금리인상이 마무리 되는 등 이자 부담이 줄어야 거래절벽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하철 1호선과 경춘선을 환승할 수 있는 광운대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월계시영 아파트는 미성, 미릉, 삼호3차 아파트로 이뤄져 있다. 이른바 ‘월계 미미삼’이라고 불리는 아파트는 최저 5층~최고 14층, 32개동, 총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매매가격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서울 노원구 월계동 미릉아파트. /김대환 기자

35%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45%)보다 0.10%포인트 축소되면서 3주 연속 하락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노원구(-0.70%→-0.39%), 도봉구(-0.77%→-0.44%), 강북구(-0.45%→-0.37%)도 하락폭이 축소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했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미성’은 이달 전용면적 50㎡가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거래가격(5억85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같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아파트.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 2억4000만원에서 이달 2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승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삼호3차’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59㎡가 6억475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7억원) 대비 5250만원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2월 2억7000만원에서 이달 2억3000만원으로 40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계약이 이뤄졌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월계시영의 경우 상계주공 등 주변 재건축 예정 단지보다 대지분비 커서 사업성이 좋다”면서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거래량과 매매가격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은 광물세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회복을 보이겠지만 향후 집값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김대환 기자 kdh@

## 당정, R&D 투자 촉진... 조세감면 등 추진

국민의힘, 민·당·정 협의회 개최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활용 등 요청

산업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 차원에서 민·당·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협의회를 가졌다. 국회와 기업, 정부 관계자가 함께 R&D 투자 애로 사항에 대해 듣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협의회에는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고광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김택중 OCI 대표, 박영태 캄시스 대표, 이성진 이노랩 대표, 최근수 딜리 대표, 김왕한 한국에너지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올해 정부 R&D 예산안 30조원이 기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의 주요 요청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업 측은 ▲R&D 투자 활력 제고 차원의 조세 감면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 추진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활용 및 중소기업 연구 인력 확보 등을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요청한 조세 감면과 관련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증액

분에 대해 50%까지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8% 밖에 안돼서 어렵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면 추가 검토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민관 협력에 기반한 R&D 정책과 관련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R&D 비용을 많이 갖고 있어 연구 단체에 직접 방문해 R&D 규모 및 방향, 필요한 기술 모든 것들을 함께 토론했다”고 화답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군대에 가는 대신 산업계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기간이 끝나면 이직을 많이 해서 연구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라며 “노동부에 병역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 일을 더 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대학, 대학원 졸업 후 취업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게 (기업 측 입장)”이라며 “기업 채용 전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158억원 정도 있어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은 기업 연구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안을 당 소속 김영식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가 잘 되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ANGELINUS | mashimaro

마시마로 인형(대)



마시마로 인형(소)



마시마로  
쫄득베리라떼



마시마로 스텐컵



마시마로 음료 3종 중 택 1

**3,000원 할인**

마시마로 인형 or 스텐컵 + 마시마로 음료 동시 구매시

# 이복현 “보험사, 외형 성장보다 시장·민생안정에 힘써야”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유동성 공급기관 역할 충실 이행  
PF·해외투자 등 철저한 관리 주문  
안전망으로서 보험 본연역할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보다 힘써 달라”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당부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14개 생명·손해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보험업계가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에도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면서 “보험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시에도 장기자금을 제공해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2008년에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증권 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사들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올해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정상기업의 부실화가 금융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회사별로 투자적격 기업을 적극 발굴해 채권 매입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

려 등이 계속되며 부동산 등 경기 민감성 자산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사후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도입된 회계제도와 자본 규제 등에 대한 확실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 시행으로 12년 만에 규제 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회계시스템 및 산출 결과 등을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부동산PF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감독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건전성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표적인 보험 본연 역할의 예로 연금보험 개발, 이륜차 보험 활성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실수요층에 대한 대출 등이 꼽힌다.

이 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사

적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다양한 연금보험 개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보험 활성화 등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며 “비대면 채널 활성화, 기후와 헬스케어 상품 확대 등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다각도에서 고민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이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 컨트롤 타워 설치나 환급관련 이슈에 대한 이견은 적은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은행 대출금리 내리는데... “체감 어렵다”

**신규 대출자 한정 낮은 금리 혜택  
기존 소비자들은 적용 안돼 불안  
차주들 곡소리에 추가 인하 예상**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있지만 신규대출자 한정으로 기존대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자체 요청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금리 인하하고 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4.21~7.08%로 지난 6일(연 5.08~8.11%)과 비교해 약 2주 만에 금리 상단이 1.03%포인트(p) 떨어졌다.

변동금리 주담대의 준거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 예금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 17일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050%p 하락한 데다 고정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지난 6일 4.527%에서 20일 4.104%로 0.423%p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은행들의 연이은 금리 인하 조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내려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코픽스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존 차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직장인 A씨는 2년전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7월 3억6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았다. A씨는 당초 금리는 3.5%였지만 연 7%까지 오르면서 월 원리금 상환액이 161만6561원에서 239만5089원으로 77만8528원 늘어났다.

직장인 A씨는 “이자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생활하기도 힘들다”며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나왔

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주들의 곡소리에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대면 방식의 주담대 및 전세대출 일부 상품 금리를 최대 0.30%p 낮췄다. KB국민은행도 26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p 내린다. 이 경우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도 7%대가 붕괴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수익과 직결되는 가산금리를 내리는 방식으로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금리가 안정되고 있고 예금금리 역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출금리를 올릴 요인이 없는 것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대형 손해보험 5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내달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2.0~2.5%를 인하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자동차들이 주행 중인 모습. /뉴시스

## 당국,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불확실성 확대 따른 추가부실 대응**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지원조치로 은행의 여신은 증가하는 반면, 부실채권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대손준비금을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들의 예상손실과 관련해 회계기준(IFRS9)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손실흡수 능력 보안을 위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합산액이 건전성 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추후 부실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유리 기자 yu115@

금융위는 우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결과 등을 보고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도 가능하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예상손실 전망모형은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 방법의 차이가 크다는 평가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은행은 예상손실 전망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은행권, 中소 이자감면 등 4000억 지원

은행연합회는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우리·하나·국민)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 차주는 약 28만 5000개사로 대출잔액은 50조원, 감면혜택은 4000억원 규모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금리상승기 중소기업 차주의 이자부담 절감(감면혜택 3600억원) ▲연체 중인 중소기업 차주의 연체대출금리 경감(감면혜택 400억원) ▲정부기관과 은행 간 협업 확대·강

화 (대상기업 600개사) ▲대출 회수 자체와 신규자금 공급 유지 등이 있다.

5대 은행은 신용등급은 낮지만 연체가 없는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7%를 초과하면 최대 3%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이자감면 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중소기업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를 최대 2~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신규 신청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변동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우대해(최대 1%포인트 인하) 대출을 실행한다. 고객에게 금리전환 옵션(대출기간 중 6개월 주기 신청 가능)을 부여해 금리변동에 따라 고정·변동 금리로 조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현재금리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등 폭넓은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체 중인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대출금리를 1년간 최대 1~3%포인트 인하하는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용 기자

# 金-安 '2파전' 양상... 수도권·영남 표심 놓고 신경전 가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결선투표 없는 당선 목표

김기현 '安, 철새정치' 비판에  
안철수 "네거티브 안타까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안철수 의원 간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경선 초기부터 다툼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현안뿐 아니라 불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전당대회가 또 한 번 내부 갈등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최근 다투는 현안은 '수도권·영남 표심의 향방'과 '당적 변경 유무' 등이다. 양측이 결선투표 없는 당선을 목표로 하면서, 지지세 확장이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게 수도권·영남 표심 문제였다.

김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안철수는 2030 수도권, 김기현은 40대 이상 영남권 강세'라는 분석에 대해 "틀렸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이 김기현(사진 왼쪽)·안철수(사진 오른쪽) 의원 간 맞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뉴시스



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급한 뒤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것(1월 22~23일, 전국 유권자 2002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 대상,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다.

해당 조사 결과 김 의원 지지율은 서울에서 25.5% 지지율을 기록, 안 의원(17.1%)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에서는 김 의원(24.0%)과 안 의원(24.6%)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수도권 민심을 잘 알고, 중도와 2030 표심은 안철수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김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로 반박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을 겨냥해 "저야말로 외연 확장성이 더 높은 사람"이라며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서 승부해보자"는 말도 했다.

안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김 의원이 '철새 정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맞섰다. 전통적 보수 지지층 표심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철새 정치를 하거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정치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안 의원이 정치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긴 데 대해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26일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는 말씀 아니

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가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맞섰다.

안 의원 170V 캠프 손수조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김장연대 하다 갑자기 장을 지우라 하고, 연포탕 하다 갑자기 진흙탕을 만들고, 오락가락 김 후보 행보가 조금해 보인다. 언론 앞에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하고 뒤돌아 국민 앞에서는 네거티브만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치열하게 다투면서 내부 갈등도 격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권주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소중한 전당대회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는 당원 모두가 승리하기 위해 당심(黨心)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檢 출석 앞둔 이재명, '텃밭' 전북서 민생행보 주력

7.2조 에너지 지원금 제안 이어  
'국민속으로 경청 투어' 나서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여러 회의와 텃밭인 전북 지방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변호사 1명을 대동하고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실제 조사도 이 대표가 원하는 날짜에 받을 예정이다.

당 대표 취임 후 받는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난방비 급등, 국가폭력 피해자 관련 회의를 거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책으로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에너지 관련 기업 황제세 부담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

인상·에너지 가격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또 확실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가폭력 인권 범죄에 대한 각종 소멸시효, 공소시효, 징계시효 등을 배제하는 법안 통과에 성

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후엔 '텃밭' 전북으로 향해 지역 시민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떠났다.

26일 예정된 지방 일정 4개 중 3개를 전북 정읍에서 축산 관련 민심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했다. 최근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한우 도매 가격 폭락으로 울상 짓는 축산업 종사자를 만나 이를 위로하고 유통 과정 단순화 등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내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까지 총 6차례 진행된 경청투어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관련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결백함을 주로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25일) 민주당 내 초선 강경과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한 데 이어, 오후 11시가 넘는 시각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국방위, 北무인기 현안 보고 복귀 시간 공방전 전력 강화 요청도

국회에서 지난 12월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초 침입 무인기가 북으로 복귀한 시간을 두고 국방부와 공방을 벌였고,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공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는 군 장비를 지적하며 전력 강화를 요청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26일 북한 무인기 정비태세검열 결과 보고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군 당국의 보고보다 최초 침입 무인기가 빠르게 군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군단 진지에서 (최초 침입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에 최초탐지 됐다. 이어서 수도권방위사령부(수방사) 진지에서 10시 38분경에 탐지됐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탐지를 했지만 그것을 무인기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아니다. 그때는 1군단하고 수방사가 중첩해서 그것을 무인기로 평가했다고 정비태세검열단에서 이야기 했다. 상당히 서울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속도와 군사분계선에서 용산까지 직선거리를 보았을 때 30~40분 걸렸을텐데 (무인기가 용산까지 도달했을 때가) 10시 50분경을 보인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전까지 레이더 상에 포착된 표적이 무인기인지 새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합참의장 대답을 듣고 난 후 탐지 장비 최신화와 연구 개발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북한이 2014년부터 무인기 도발을 시작했고 2017년엔 경북 상주 사드기지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도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표적 판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 尹 "與 전당대회... 좋은 축제니 꼭 참석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행사  
나 전 의원 불출마 관련 언급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3·8 전당대회,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다만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양금희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오찬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오찬은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오찬에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양 수석대변인,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오찬에서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3·8 전당대회 사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 위원장 요청에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전당대회라는

좋은 축제이니까,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당대회 주요 일정과 컷오프 등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오찬에서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질문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 대통령이 전당대회와 관련 '어떻게 해 달라', '무엇을 하라'는 것은 당무개입"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겠다"고 답했다.

# 삼성, 한겨울 '4계절 에어컨' 새바람... 효율 1등급 넘어섰다

## SAMSUNG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신제품 공개 40도 수준 '체온풍'... 3세대 규정 효율 1등급 넘어선 특화모델 선보여 가격 인상폭 5% 정도로 최소화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펠케터·탈취·살균 3개제품 출시

새로운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이 함박 눈 속에서 첫 선을 보였다. 공기청정기와 함께 명실상부 사계절 가전으로 거듭난 모습. 성능은 물론 편의성과 친환경 경성까지 더 개선하면서 침체된 가전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삼성전자는 26일 '비스포크 무풍 에어컨'과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신제품을 공개했다.

가전업계는 일찌감치 1분기에 신형 에어컨을 출시해왔다. 에어컨이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으면서 설치하기 쉬운 겨울에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삼성전자는 3세대 무풍 에어컨, 2023년형을 출시했다.

가, 공기청정과 제습 등 공조 기능 활용도 높아진 영향이다. LG전자도 지난 18일 자동 청정 관리 기능과 펠케터 등을 추가한 2023년형 휘센 타워에어컨을 출시한 바 있다. 위니아 등 업체들도 조만간 신형 모델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에어컨은 2016년 처음 출시돼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확보할만큼 인기 모델로 알려져있다. '무풍' 기능으로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

를 만들었고,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2세대에 접어들어 지난해부터는 '체온풍'을 적용하며 사계절 가전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LG전자가 신제품에 온풍 기능까지 더한 상황, 삼성전자는 바다 난방이 발달한 국내 주거 환경에서는 봄과 가을에만 사용하는 40도 수준 체온풍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무풍 에어컨을 3세대로 규정했다. 3D 메탈 프레스 공법으

로 실루엣 디자인을 새로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무풍 마이크로홀도 27만여개로 종전보다 1500개 더 늘려 성능을 강화했다.

특히 무풍 기능을 전 라인업으로 확대했다. 갤러리와 클래식뿐 아니라 슬림 제품군에서도 무풍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체온풍도 갤러리 56.9㎡형 제품까지 적용을 늘렸다.

삼성전자는 3세대 무풍 에어컨의 또 다른 특징으로 '친환경'을 들었다. 일단 친환경 냉매인 R32를 슬림 모델로 확대 적용, 솔라셀 리모컨도 클래식 모델까지 제공한다. 갤러리를 기준으로 전 모델에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 열교환기 전열 면적을 2배 늘리고 실외기 팬을 8% 가량 더 키워 고효율 모터까지 적용해 1등급을 뛰어넘는 에너지 특화 모델까지 선보였다. 1등급 모델보다도 10% 냉방 효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극세 필터와 전기 집진 필터도 세척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도 친환경에 힘을 더한다. 'AI 절약 모드'를 활용하면 스스로 작동을 조절해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해준다.

관리도 더 편해졌다. 이지케어 스마트싱스로 상태를 진단해주는 '이지케어 AI' 등 7단계에 항균 구리 극세 필터를 추가하며 8단계로 청결을 유지해준다. 삼성전자는 30초만에 팬까지 분리하는 모습을 시연하며 편의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커버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도 제어해준다. 무풍에어컨 클래식으로도 적용을 확대하며 더 많은 소비자가 편의 기능을 쓸 수 있게 했다.

색상도 더 다양해졌다. 갤러리 기준 ▲패브릭 화이트 ▲스노우 포레스트 ▲아이보리 등 7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클래식은 ▲화이트 ▲산토리니 베이지 외당 6종으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에어컨과 함께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도 함께 소개했다. 사계절 가전인 에어컨과 함께 '에어 솔루션'으로 같은 제품군이 됐다.

최영준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앞으로도 친환경과 스마트싱스 등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KT, 희토류 등 몽골 광물자원 국내 공급

구현모 대표, 몽골 CTO로 위촉  
몽골과 '디지털 몽골 실현' 협력

KT가 몽골에서 생산되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을 국내에 공급한다. 구현모 KT대표(사진)는 '몽골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 몽골 디지털 정책 가속화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KT는 몽골 정부와 '디지털 몽골 실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희토류(세계 매장량 16% 보유), 구리(2위), 형석(3위), 금, 철, 아연 등 80여종의 광물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미래가치 산업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광물자원이다.

KT는 지난해부터 몽골의 국가개발



전략인 신부흥정책에 발맞춰 몽골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KT-몽골 간 DX 협력 과정 중 체결된 이번 희토류 등 몽골 광물자원 공급을 위한 MOU는 몽골의 산업 발전뿐 아니라 국내 타 산업과 협력에 대한 한국 미래 가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이번 MOU를 바탕으로 몽골에서 생산된 희토류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국내 타 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후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정부 및 국내 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대표는 "몽골 최고기술경영자(CTO)" 위촉식을 갖고 외국 기업인 최초로

몽골의 국가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위촉됐다.

KT는 구 대표의 CTO 위촉을 계기로 몽골 정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KT는 하나로재단, 몽골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몽골 건강검진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BC카드도 몽골 중앙은행과 카드 결제 연동 사업을 진행하고, 국가 통합 결제 시스템 및 매입 시스템 구축을 협의한다.

구 대표는 "지난 3년간 이루어낸 KT의 성장 전략, 노후를 글로벌 DIGICO 전략으로 확장해 국내외 타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

## 삼성전자, 영표준협회 BCMS 국제표준 획득

파업·부도·해킹, 지진 등 대처 평가  
화성캠퍼스 구축체계 국내외 확장

삼성전자가 위기 극복역량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영국표준협회에서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BCMS)' 국제 표준 '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BCMS는 재해나 재난 등으로 업무가 중단돼도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 정상화하는 능력을 뜻한다.

파업이나 부도, 해킹 등 경영 문제

는 물론, 지진과 화재 등 자연 재해와 테러 등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인증을 획득하면서 글로벌 고객사에 신뢰를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단 화성캠퍼스에 구축한 체계를 국내외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BSI 코리아 임성환 대표는 "삼성전자는 사업 연속성 관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감시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LG전자, 美 PGA쇼 참가 글로벌 실내골프장 공략

LG전자가 글로벌 실내골프장 공략을 이어간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PGA쇼 2023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PGA쇼는 미국프로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골프 전시회로, 전세계 80개국 1000여개 이상 업체가 골프 관련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LG전자는 상업용 프로젝터 LG 프로빔을 앞세워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제작 전문기업 '케이골프'와 함께 공간 맞춤형 실내골프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전자가 골프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용 기자



(왼쪽부터) LG이노텍의 한병철 동반성장팀장, 신정곤 재경담당, 이용기 구매센터장, 신한은행의 강명구 대기업 강남본부장, 김영신 여의도중앙 대기업센터장, 최인석 여의도중앙 대기업센터 부지점장.

## LG이노텍, 협력사 ESG강화 나섰다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1430억 규모 동반성장 펀드 조성

LG이노텍이 협력사를 위한 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LG이노텍은 26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본사에서 신한은행과 '협력사 ESG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협력사에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내용이다. LG이노텍과 신한은행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 지원 등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을 위한 상품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SG나 탄소중립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혜택 범위도 넓혔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 신한은행도 신규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조성하는 동반성장펀드 규모는 1430억원에 달한다. 당

초 630억원에서 2020년 1030억원으로 늘린지 불과 3년만에 50% 가까이 증액한 것. 협력사를 위한 상생 금융 지원에 힘을 더한다는 의미다. 대금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결제 기간을 매달 3회로 늘리는 등 노력에 이어 규모까지 크게 확대했다.

LG이노텍은 그 밖에도 협력사 테크페어와 동반성장 아카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와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6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이용기 구매센터장(상무)은 "LG이노텍은 협력회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기반은 동반성장 활동이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원광디지털대학교

# 오늘은 장학생 내일은 전문가



국가장학금으로 공부하고  
특성화교육으로 앞서가자

##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모/집/기/간** 2023.1.20(금) ~ 2023.2.15(수)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茶)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홈/페이지** [www.wdu.ac.kr](http://www.wdu.ac.kr) **입/학/문/의** 1588-2854

2020 교육부 평가인증대학 및  
재정지원 가능대학 선정

입학생 장학금 수혜율 100%  
\* 2022년 1학기 기준

재학생 58% 전액장학생  
\* 2022년 1학기 기준

사이버대학 최다 지역캠퍼스 보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익산)

# ‘갤럭시북3 울트라’ 출격 대기... 프리미엄 랩톱시장 정조준

## 갤럭시 언팩 D-6

역대급 성능으로 프리미엄 전략 강화  
인텔 13세대 i9 프로세서 탑재 전망  
전용 GPU, 고용량 배터리 등 장착

삼성전자가 노트북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전략을 보다 강력하게 구사하며 점유율 확장에 열을 올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북’ 시리즈로 29년 연속 국내 노트북 시장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새해 언팩 행사를 통해 최고급 사양인 ‘갤럭시북3’ 공개를 앞두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북3 ▲갤럭시북360 ▲갤럭시북3프로 ▲갤럭시북3프로360 ▲갤럭시북3울트라를 발표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트북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은 ‘울트라’ 라인 추가다.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서 최고급 사양을 지칭하는 단어인 ‘울트라’가 노트북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 폼팩터인 ‘갤



지난 23일 부산의 한 삼성프리미엄스토어에서 고객들이 노트북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허정윤 기자

럭시 S 시리즈’와 통일감을 추구하며 노트북 시장에서도 프리미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IT 전문매체 샘모바일도 갤럭시 북3 시리즈에 대해 “갤럭시북3 울트라는 애플의 맥북 프로와 맞설 수 있는 최고급 노트북”이라며 “갤럭시북3 울트라는 델 XPS 15와 맥북 프로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노트북 신제품에는 인텔의 13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세대 인텔 코어 i9중 최상위 버전

인 인텔 코어 i9-13900K는 최대 24코어(P코어 8개, E코어 16개)로 32개 작업(스레드)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15.6~16형 슈퍼레드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파일 공유 기능 삼성 퀵쉐어(Quick Share)도 탑재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윈도 헬로 인증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웹캠과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고용량 배터리 등이 장착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전자업계는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노트북 시장에서도 애플과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을 두고 호각을 겨루는 구도가 생성됐다고 보고 있다.

애플도 신형 노트북인 14·16인치 ‘맥북 프로’ 신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애플이 직접 개발한 신형 칩셋 ‘M2 프로·맥스’를 맥북에 적용해 전작 대비 CPU 속도가 20% 빠르게 만들고, GPU 성능은 30% 개선하는데 성공했다. 애플은 이번에 적용한 칩셋은 노트북 전력 효율 성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온칩(SoC)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수명도 14인치 경우 기존 17

시간에서 최대 18시간으로, 16인치는 21시간에서 최대 22시간으로 늘어났다.

랩톱 제작업체들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지만, 프리미엄 전략과 모델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며 시장 점유율 사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PC(랩톱+데스크톱)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6% 줄어든 2억8510만 대로 지난해 연속 감소했고, 랩톱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총 2억 2380만 대 출하하는 데 그쳤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랩톱 시장도 지금의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었지만, 삼성전자가 ‘고성능 노트북’을 브랜드 이미지로 인정받아 소비자를 만족하게 한다면 ‘프리미엄 랩톱 시장’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핵심기술 수출길 열려

산자부 설계·제조기술 해외수출 승인  
북미 등 해외 생산기지 활용 가능해져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생산기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포스코케미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케미칼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인 ‘니켈 함량을 80% 초과하는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의 해외수출을 승인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수출 시 정부가 엄격한 보안

요건을 요구하는 기술을 뜻한다. 해외 공장에서 활용하려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반도체·전기전자·철강 등 13개 분야 7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고시하고 있다.

니켈 비중을 높인 양극재 제조 기술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기술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의 기술 보호 수준, 배터리 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과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사 및 원료사와 합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북미, 유럽, 중국 등에 거점별 양산능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승인으로 포스코케미칼은 해외 양극재 생산법인인 캐나다 얼티엄캠과 중국 절강포화에서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양산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승인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향후 북미와 중국 외 다른 해외지역 사업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SKT-두산로보틱스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 선배

‘AI 바리스타로봇’ 출시

SK텔레콤은 국내 로봇제조 선두업체인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인 ‘AI(인공지능) 바리스타로봇’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AI 바리스타로봇은 두산로보틱스의 앞선 로봇 제조 및 서비스 역량에 SKT의 AI, 빅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빅테크 기술을 결합한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로, 커피, 에이드 등 20여종의 다양한 음료를 제조할 수 있다.

SKT의 AI 바리스타로봇은 SKT의 AI, 빅데이터 솔루션 및 보안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을 통해 점주의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SKT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설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메뉴별/지점별 매출현황, 원재료 소모, 기기상태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알람으로 알



SK텔레콤은 국내 로봇제조 전문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무인 커피로봇 서비스인 ‘AI 바리스타로봇’을 출시했다.

/SKT

려주고, 커피류, 에이드류, 우유류 등 고객이 원하는 항목별 제조현황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또 2월 중 앱 버전도 오픈할 예정이다.

점주는 무인 운영에 따른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매장 관리 부담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운영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윤정 기자

## 클라우드·물류사업 고속 성장... 매출 17.2조 ‘사상 최대’

### 삼성SDS 2022년 잠정실적 공시

영업익 9161억... 배당안 33% ↑

삼성SDS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 성장하며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SDS는 2022년 매출액 17조 2347억 원, 영업이익 9161억 원의 잠정실적을 26일 공시했다.

2022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4조 2500억 원, 영업이익 18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분야별로 보면 IT 서비스 사업 연간 매출액은 제조·금융·공공 분야 클라우드 사업 확대와 차세대 ERP 전환 컨설팅 수행 등으로 5조 968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9% 성장했다.



삼성SDS 사옥. /삼성SDS

특히, 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삼성클라우드서비스(SCP) 기반의 CSP 사업과 엮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MSP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며 연간 매출 1조 1627억 원을 달성했다.

물류 사업 매출은 항공 물동량 증가와 미주·유럽 물류 서비스 확대 등으로 11조 26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삼성SDS는 또 올해 지속되는 전세계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클라우드’와 ‘디지털 물류’에 방점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IT 서비스 사업에서는 삼성클라우드 서비스(SCP)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하고 글로벌 리전을 확대하는 등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물류 사업에서는 헬로스퀘어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삼성SDS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안을 지난해 주당 2400원에서 33% 증가한 3200원으로 결정했다.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배당성향을 30% 수준으로 한다는 배당정책을 공시했다.

/채윤정 기자 echo@

## 네이버, 성과급 대폭 삭감... 직원불만 급증

전년 대비 20~40% 이상 축소 분석

네이버가 성과급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익명 앱 블라인드 앱에는 “이직을 해야 하나”, “성과급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더이상 팀에서 필요없다는 얘기가” 등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2월 3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사내 간담회인 ‘컴퍼니 데이’를 개최할 계획인데, 이때 성과급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성과급은 전년과 비교해 20~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중간 고과자가 연봉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지만 올해 8~11% 수준을 받아 성과급은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이 줄어든 것은 맞다”며 “비율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적인 비율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 외인 투자자 돌아왔다... 반도체·2차전지 등 올 6조 순매수

한국거래소, 하루 거래액 8120억  
환율하락·리오프닝 등 환경 좋아  
삼성전자·하이닉스 상위 순매수  
LG화학·포스코홀딩스 등도 '관심'



/유투이미지

지난해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들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하락,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6조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날에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120억원을 사들였다.

2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조 1603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가 63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

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다. LG화학(1827억원), 포스코홀딩스(1809억원), 삼성SDI(1112억원) 등을 사들였다.

김정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작년 4분기 평균적으로 145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 가파르게 1200원

대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으며 반도체 업황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2차전지 수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중국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운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므로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며 "MSCI 기준으로 봤을 때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중국이랑 한국에서 동시에 매수하는 게 비중 조절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24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채현기 흥국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원·달러 환율 하락, 정부의 WGBI 편입 추진,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의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거래 비중이 고점인 상황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 어닝시즌이 진행 중이고, 주요 대형주들의 잠정실적을 발표로 어닝쇼크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거래 비중 또한 이미 고점 수준까지 높아져 있고 펀드네팔(기초 체력)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도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코인거래액, 코스닥 넘었다... '불장' 또 오나

5대 거래소 24시간 거래액 49억弗  
비트코인 한달만에 37% 가량 올라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대부분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대금도 크게 치솟았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면서 또 다시 강세장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가상화폐 시장 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 빙셀,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날 오후 1시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은 총 49억2138만달러(약 6조 616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5개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8억1352만달러에 불과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을 앞지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조7072억원(1월 2~25일)이다. 특히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만 하더라도 지난 24일과 15일 장중 일일 거래대금이 50억달러선을 넘어서면서 혼자서도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압도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약세장

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을 시작으로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서 일주일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2108만원에 머물렀지만 이날까지 37%가량 오르면서 280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쓰레스홀드(T), 애플토스(APT)의 경우 최근 1주일 동안 가격이 각각 174%, 140% 상승했다. 두 가상화폐는 이날 중에도 상장 가상화폐 중 거래대금 상위 순위에서 애플토스 1위(1조 3765억원), 쓰레스홀드 2위(5341억원)

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빙셀에서도 다수의 알트코인의 시세가 단기간에 급변동하면서 '거래 유의' 안내를 연이어 공지했다. 지난주 증권시장이 문을 닫은 뒤 빙셀 측은 설 연휴 동안에만 베라시티(VRA), 엘리시아(EL), 템코(TEMCO), 셀러네트워크(CELR) 등 총 6개 종목에 대해 거래 유의를 안내했다.

한편, 각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불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두고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지난해 말 NH농협은행과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종료하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이영석 기자 ysl@

##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에 M&A 줄었다

예탁결제원, 총 137곳으로 2.8% ↓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상장사 인수합병(M&A)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7개

사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53개사에서 44개사로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전년 88개사에서 93개사로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23개사(유가증권 36, 코스닥 87), 주식교환·이전 6개사(유가증권 6), 영업양수·양도 8개사(유가증권 2, 코스닥 6) 순이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33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5% 줄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3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80.2% 감소했다. 작년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기업인수합병(M&A)사유는 합병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443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피앤이가 375억원을 지급했다.

/원관희 기자

## 부문제도 폐지... 11본부서 7본부로 축소

금융투자협회·임원인사 단행  
증권회사 지원조직 1본부 3부 2팀 확대

금융투자협회가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유사기능 조직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산업서비스 조직을 강화해 회원사 대변역량을 제고한다. 기존 11본부·부문이 7본부로 축소된다.

중복적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통일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부문제도(총괄부문, 대표제)를 폐지하고, 조직 슬림화에 따라 본부장을 축소했다. 통합운영시 시너지가 가능한 산업전략본부와 시장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는 통합한다.

증권(선물)회사 지원 조직을 기존 1개 부문 3개 부서에서 1본부, 3부, 2팀으로 확대한다. 중소형 증권사의 성장 지원 및 현안 대응을 전담할 중소형사 지원팀, 가상자산,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이슈에 대응할 디지털금

융팀을 증권·선물본부내 신설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원조직을 기존 1개 부문 2개 부서 1개팀에서 1개 본부 2개 부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회원사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사모펀드팀, 대체투자시장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실물펀드팀을 자산·부동산본부내 신설한다.

기존 부동산신탁지원부는 종합부동산금융부로 개편한다.

또 실무적 소통강화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부서를 축소하고 팀 추가 신설을 통해 '부팀제'를 일부 도입한다. 부팀제 도입에 따라 세제지원부, 법무지원부, 정보시스템부, K-OTC부, 채권부 등을 팀단위로 조정한다.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총괄부를 산업협력부로 개편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조정 기능을 총괄할 미래전략·산업조정팀과 신탁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등 자산관리 업무를 지원할 WM팀을 신설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 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 1단계 준공

전북부안~군산 총연장 27.1km 규모  
DL이앤씨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공사사업'의 1단계 구간(제3공구)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은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총연장 27.1km를 6~8차로 규모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새만금 내부간선 기능을 확보하고 주변 용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중 제3공구 사업을 수주해 2017년 12월 착공, 이달 준공했다.

도로 기능성 향상을 위한 설계를 바탕으로 가변속도제어기와 자동돌발감지시스템, 염수분사시스템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첨단 교통안전시설물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도로를 선보였다.

특히 DL이앤씨는 새만금 만경대교(1968m) 구간에서 세계 최초의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총길이 723m)'를 세워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리버스 아치교는 그 이름처럼 활을 뒤집어 놓은 초승달 모양으로 아름다운 새만금의 물길을 품고 있는 듯 한 차별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김대환 기자 kdh@

# 정황근 “농식품 연관산업 수출확대… 130억弗 달성할 것”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

물류비, 용자, 마케팅 등 지원 강화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 인프라 구축  
정 장관 “농업, 수출전략 산업 육성”

정부가 민관 협력을 통해 올해 우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130억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민·관 협의체인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정황근 장관)’ 출범식을 갖고 농업분야 수출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K-푸드에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세계적인 물가오름세 여파와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은 116억 달러(농식품 88억달러, 연관산업 2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전망 등 대내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수출을 농식품 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년 대비 12% 증가한 130억 달러(농식품 100억달러, 연관산업 30억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잡았다.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 물류비와 4600억원 규모의 수출 용자, 딸기·포도 등 10대 주력 수출 품목 및 첨단 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신성장 유망품목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한류와 한식을 연계한 해외 우수 한식당 20개소를 지정하고, 수출국입항부터 소비자까지 저온유통(콜드체인) 확대, 가루쌀과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유망품목을 발굴해 육성키로 했다.

중동·동남아 등 신시장에 ‘한국형 시범온실(지능형농장)’을 구축하고 딸기 등 차별화된 품종을 연계해 수출을 확산한다. 농기계는 북미시장에서 제고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남미·동남아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비료는 6000억원 규모의 원료 구입자금 용자 지원대상 원

료를 12개로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수출 확대를 위한 4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투자대상을 농식품 이외에 지능형농장, 농기자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정황근 장관은 출범식 환영사에서 “농업도 충분히 수출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올해도 대내외 수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수출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추진본부장으로서 분기별 1회 이상, 실무 관계자들도 수시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현장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고 수출업체와 협력과제 발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근본적으로 한계”… 경영·노동계, 개정안 마련 한 목소리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토론회

실효성 논란… 시행 1년만에 존재 기로  
전문가들 “산재예방 취지에 맞춰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도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도 처벌 중심의 기존 법 체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형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전에 예방을 하지는 취지와 달리 산재 발생 후 처벌 중심으로 가다보니 법적 취지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법이 돼 버렸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사도 중대재해법의 접근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경영계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현장 내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정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도입 후 기소된 기업들 중 처벌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정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발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 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이 자리에서 법적 한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사업장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거나 예산을 투자하기보다는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과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법 이행·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부가 법을 보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명명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산재 예방이란 법적 취지는 살리면서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고용부도 이 법이 사업주 처벌보다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둔 법이라고 밝힌 만큼 명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근거 마련

### 공정위 2023년 업무 추진 계획

지정기준 자산총액 기준 상향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는 근거 마련에도 착수한다.

대형유통사가 중소 납품업체에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 간섭을 금지하는 법도 마련키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시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키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내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

호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정위 모든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지정 요건이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0.5%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일부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를 위

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와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오는 3월부터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당사자간 합의 등 납품단가 적용 예외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 탈법행위로 보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와 2·3차 협력사까지 확산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자부

## 에너지 기술개발 1.2조 투입

정부가 올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기술개발에 1조2065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에너지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1조1967억원) 대비 0.8% 증가한 1조206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 중 1159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과제 예산의 88% 규모인 1024억원을 27일 공고하는 1차 연구개발과제(80건)를 통해 지원한다. 과기부와 의 다부처 사업인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20개 과제, 337억원)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baby  
bear  
muu )

3 yrs old  
love baking!  
(forest bakery)  
chef.



무우우 [muu]

놀이공원 기념품샵에서 발견된 아가곰 인형.  
같은 이름을 가진, 똑같이 생긴 친구들이 많아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생긴 곰인형을 모두  
무우우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 후카후카스튜디오 ]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 지자체 청렴도평가 '보성군' 유일 1등급... '나주시' 최하위

권익위, 광주·전남 지자체 평가  
광주 5개 자치구 대부분 2~3등급  
보성군, 3년 연속 청렴도 '1등'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의 결과가 극명히 엇갈렸다.

보성군은 지역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지만 나주시는 유일한 5등급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선 대부분 2~3등급으로 선전했지만 서구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의 종합청렴도에선 보성군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래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이다.

반면 나주시는 광주·전남 유일 종합청렴도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전남 기초 지자체 2022년도 종합 청렴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1등급	보성군		영광군 광주 북구
2등급	곡성군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보성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광주 동구 남구 광산구
3등급	광양시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구례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화순군	강진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해남군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영암군 진도군
4등급	순천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광주 서구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무안군 완도군 장성군 화순군 광주 서구	나주시 곡성군 신안군 함평군
5등급	나주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장흥군 진도군	

청렴체감도 5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으로 모두 낙제를 받았다.

곡성·담양·영광·장성·해남 등 5개 군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해남은 5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담양은 3년 연속, 곡성·영

광도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 도내 기초지자체 중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장성은 1년 전 3등급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영광은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도내 유일 1등급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청렴도 3등급에는 광양·여수·목포 등 3개 시와 고흥·구례·신안·영암·완도·화순군 등 6개 군이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인 4등급에는 순천시와 5개 군(강진·무안·장흥·진도·함평)이 포함됐다. 순천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에선 간신히 탈출했지만 청렴체감도 면에선 5등급으로 전국 꼴찌다.

광주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청렴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2등급을 받은 동구와 남구, 북구였다.

광산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했다. 서구는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꼴찌다.

한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설문조사 결과) 60%와 청렴노력도(정량·정성평가) 40%를 가중평균한 뒤 부패실태·신뢰도 저해행위 등 감점 요인을 반영, 산정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울산시

####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 개최

울산시는 26일 시청사에서 김두겸 시장,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심의,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울산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 위촉대상 위원회 선정' 등 2개 사업 안건을 심의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 여수시

####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여수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 산업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대수는 200대로 수소차(현대자동차 넥쏘) 신규 구매 시 대당 37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 단체이며, 전체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jjacecom@

### 부산교육청

####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확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유치원에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40대 이상 여성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 세대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유아의 안정감을 증진하고, 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인력은 책 읽어주기, 놀이 활동 보조 등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 신안군

#### 독거노인 1300명에 긴급난방비

신안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독거노인 1,300여 명에게 동절기 한파에 따른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경제 위기, 한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독거노인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긴급지원했다.

신안군 저소득 독거노인 1,3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억 5,000천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구입하여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부도 확인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 중소·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 전남도, 4500억 금융 지원

운영자금 3800억, 시설자금 700억  
3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전남도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이른바 '3고 시대' 악조건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4500억원으로 분야별 지원 금액은 운영자금 3800억원과 시설자금 700억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전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과 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다.

운영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차료·인건비·연구개발비로, 시설자금은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은 최대 2억원을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대출하면 전남도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상황 방식에 따라 2년 거치 일시 상환은 2.0~2.5%,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은 1.1~1.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전남도가 조성한 자체 기금을 통해 최대 8년 동안 5억원에서 20억원까지 저리로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그 밖의 기업은 3.3%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코로나19 사태 3년의 긴 터널과 최근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의 난관에 놓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 해남군, 청년정책 4개 분야 223억 투입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지원

해남군은 올해 청년정책으로 4개 분야에 223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일자리·창업, 문화, 복지 등 47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하고, 주거와 일자리, 문화에 이르는 각종 청년 정책들을 총괄 추진해 청년세대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사업은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151억원을 투입한다.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연립주택 3동, 60세대 규모로 2025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임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증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2022년 밀양초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완료 모습. /밀양시

##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추진

30억 예산 들여 도시디자인

밀양시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배려와 편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에도 약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경관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가로경관 개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밀양다운 도시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

우선 민선 8기 박일호 시장 공약사업인 '밀양다운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도심 지역의 밀양다운을 표현한 가로경관 개선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에 팔 걷는다

친환경경차 보급 등 추진

사천시는 미세먼지 걱정없고 맑고 푸른 청정도시 사천 조성을 위해 '2023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84억원의 예산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장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어린이통

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300대), 수소차(30대), 전기이륜차(50대) 등 총 38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할 예정인데,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총사업비 60억원으로 올해 사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뒷받침한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비타민부터 콜라겐까지 간편하게... 내 몸을 지키는 '한입'

## 건강한 食생활

### (下) 건기식

건강에 대한 관심 커지며 일상 자리 유통업계 전반 진출... 차별화 경쟁

**CJ제일제당** 맞춤형 제품개발 주력  
**농심** 미래 성장 주도 신사업 낙점  
**KGC인삼공사** 카톡 선물 서비스



소비자가 홈플러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

소비의 큰손으로 떠오른 MZ세대가 헬스플레저, 셀프메디케이션 등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를 돕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필수로 자리 잡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9년 4조8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22년 6조1429억원으로 커졌다.

또 전국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서치에서 2022년에 건기식을 구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6%로, 10가구 중 8가구가 1년에 한 번 이상 건기식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구매액

은 35만7919원에 달한다.

이에 국내 유통업계 전반이 건기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CJ제일제당은 국내 헬스케어 시장 선두를 목표로 지난해 1월 CJ웰케어를 출범, 유형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기식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도 지난해 8월 건기식 전문스타트업 '빅썸'의 지분 약 53%를 인수하며 시장진출을 선언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당류, 저칼로리, 건기식 등 지속가능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나가기 위함이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분

인수한 빅썸은 2016년에 설립한 건기식 연구개발 및 유통 플랫폼 전문회사로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제조·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라면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농심 역시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사업으로 건기식 사업을 낙점했다. 지난 2020년 3월 종합 건기식 브랜드 '라이필'을 론칭하고 출시한 제품 '라이필 더마 콜라겐'은 2년 만에 누적매출 550억원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농심은 콜라겐 제품을 기반으로 비오틴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틴 등 다양

한 성분을 포함한 관련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6조원 규모로 성장한 건기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관련 제품군 출시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라며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 추세에 발맞춰 건기식 제품 다각화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앞으로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기식 시장에서 소비자들 가장 많이 찾는 원료 중 하나는 홍삼이다.

KGC인삼공사는 최근 온라인몰과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강화하며 2030 세

대의 유입을 늘리기에 나섰다. 실제로 2018년 40.5%였던 2030세대의 매출 비중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56.2%까지 올라섰다. 2030세대가 중장년층 보다 홍삼을 더 많이 찾는 셈이다.

정관장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역시 2016년 서비스 시작 후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지난 한 해 카카오톡 기준 약 77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 이 중 2030세대의 구매 비중은 50%가 넘는다.

업계는 개별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h y는 최근 AI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다. AI기반 건강기능식품 추천 전문 플랫폼 '건강비밀(Vi-meal)'과 함께한 서비스는 소비자 니즈, 개인별 건강상태를 고려해 제품을 추천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건기식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다"며 "올해도 건기식 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보다 좀 더 세분화하고 다양한 니즈에 걸맞는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삼양식품, 건면 브랜드 '쿠티크' 팝업스토어 오픈

성수동 위치... 내달 5일까지 운영  
제품 시식, 럭키드로우 행사 진행



삼양식품이 건면 브랜드 '쿠티크'를 알리기 위해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삼양식품은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LES601 성수'에서 프리미엄 누들 부티크 '살롱드쿠티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세계 면요리를 큐레이션하는 누들 부티크'라는 콘셉트로 프리미엄 건면 브랜드 쿠티크를 론칭했다.

첫 번째 제품은 '쿠티크 에센셜짜장'으로 양파와 짜장이 어우러진 진한 풍미를 머금은 짜장 소스가 일품이다. 향후 다양한 세계 면요리를 쿠티크 브랜드로 출시해 프리미엄 건면 시장을 선

점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쿠티크에센셜짜장 출시를 기념해 이번 팝업스토어를 기획했다. '일상에서 만나는 프리미엄 누들'이라는 쿠티크 브랜드의 의미를 담아 파티형 팝업스토어로 공간을 꾸몄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쿠티크의 브랜드 스토리와 제품을 볼 수 있는 전시공

간, 다양한 포토존을 체험할 수 있다. SNS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살롱드쿠티크에서는 쿠티크에센셜 짜장 제품 시식과 럭키드로우 행사를 진행한다. 하루에 10회, 회차별 20명만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예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사전 예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양식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쿠티크에센셜짜장은 국내 라면 시장 최초로 물에 삶아 장시간 저온에서 건조시키는 공법으로 만들어 생면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다. 삶은 건면은 조리 시 전분 용출을 막아 국물이 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면을 씹어 삼킬 때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맥도날드 '쿼터파운더 치즈' 버거 라인업 강화

'쿼터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 출시



쿼터파운더 치즈버거 라인업 /한국맥도날드

맥도날드가 '쿼터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을 출시하며 목직한 비프 버거 라인업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쿼터파운더 치즈 BBQ 베이컨'은 맥도날드의 대표 비프 버거 중 하나인 '쿼터파운더 치즈'에 특제 BBQ 소스와 베이컨으로 스모키한 풍미를 더한 메뉴다. 두툼한 100% 순쇠고기 패티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 조합을 자랑하는 기존 쿼터파운더 치즈에 맥도날드 특제 BBQ 소스와 베이컨을 더해 더욱 깊은 육즙의 풍미와 감칠맛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쿼터파운더 치즈'는 고기와 치즈의 클래식한 조화에 '기본에 충실한 완벽한 맛의 조합'이라는 평을 받으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맥도날드의 스테디셀러 메뉴다. 특히 쿼터파운더 치즈에 들어가는 100% 순쇠고기 패

티는 113g(1/4 파운드)에 달하는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며, 후추와 소금으로만 조리해 고기 본연의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맥도날드는 이번 신메뉴 출시를 기념한 소셜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하며 쿼터파운더 치즈 시식권 및 한정판 굿즈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쿼터파운더 치즈 마니아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스타벅스 "아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이벤트... 무료 사이즈업 혜택

스타벅스가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즐겨 찾는 '얼죽아' 트렌트에 맞춰 이벤트를 전개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이스 챌린지 아메리카노' 사이즈업 혜택을 제공하는 '스타벅스 이벤트'(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스타벅스 이벤트'를 통해 '아이스 챌린지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는 고객은

1단계 무료 사이즈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이즈업그레이드 혜택이 적용되는 음료는 '아이스 챌린지 아메리카노', '아이스 챌린지 블론드 아메리카노', '아이스 챌린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아이스 챌린지 1/2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등 4종이다.

사이렌 오더 이용 고객의 경우 아이스 챌린지 아메리카노 메뉴를 통해 주문하면 무료 사이즈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컬리

설 기간 라방 시청자 60만명

컬리는 지난 설 연휴 동안 진행된 릴레이 라이브방송의 누적 시청자 수가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마켓컬리와 뷰티컬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하루 두 차례씩 총 10회에 걸쳐 럭셔리 뷰티 브랜드부터 신선식품, 간편식 등 각종 설 선물을 총망라한 라방을 진행했다.

컬리 측은 라방의 인기 요인으로 셋별 배송을 꼽았다. 라이브 방송 시청과 함께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바로 받아볼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아워홈, '글로벌 셰프 특식 캠페인' 실시

국내외 점포에 셰프 추천 메뉴 제공

글로벌푸드기업 아워홈은 국내외 점포 이용 고객 대상으로 '글로벌 셰프 특식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글로벌 셰프 특식 캠페인'은 아워홈 국내외 점포를 대상으로 글로벌 셰프 추천 메뉴를 매월 1회 동일한 일자에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1월부터 시작해 1년간 12회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식 메뉴는 국가별 아워홈 메인 셰프가 추천한 현지 음식으로 구성했다.

각국 셰프가 메뉴 추천뿐 아니라 표준화 레시피를 구성하고 이를 공유해 글로벌 각 점포에서 현지 음식 고유의 맛을 동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월 한국 대표 음식 떡볶이를 시작으로 2월 중국 징장루우쓰(베이징 전통 요리로 돼지고기를 얇게 채 썰어 볶은 요리), 3월 베트남 껌장(베트남식 볶음밥), 4월 미국 버팔로 워밍, 5월 폴란드 굴라시 비에푸초비(돼지고기 스투) 등 특식 메뉴를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월급빼고 다 오르네”... 식음료·편의점택배 등 가격 줄인상

롯데제과, 냉동제품 가격 올려  
해태·빙그레, 아이스크림 인상  
삼다수도 인상 대열... 시장 촉각

“유류비 상승” 택배도 요금 인상  
‘반값택배’ 가성비 강점 떨어져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가격인상이 설 연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2월 1일부터 돈가스·만두 등 일부 냉동제품 편의점 가격을 올린다. 가격 인상은 5~11% 수준이다. 가격 조정에 따라 쫄깃롤만두(180g)와 김치롤만두(180g)는 기존 3500원에서 3900원으로 판매된다. 고기통교자(350g)와 김치통교자(350g)도 기존 5400원에서 5900원으로 9.3% 오른다.

해태아이스크림도 내달부터 바류 아이스크림 전체 품목 가격을 20% 인상한다. 이에 따라 누가바, 쌍쌍바, 바밤바, 호두마루 등 스틱바 아이스크림 20종 제품 가격이 기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빙그레 역시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정리하고 있다. 빙그레는 2월부터 유가공품 등의 원부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고 밝힌 바 있다. 최종 가격 인상은 유통채널과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일반 소매점 기준 메로나·비비빅을 비롯한 바 아이스크림 7종과 슈퍼콘 등의 아이스크림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웅진식품은 2월부터 편의점을 시작으로 주요 음료 20여종 가격을 평균 7% 상향한다.

생수 판매 1위 ‘삼다수’ 가격도 2월부터 평균 9.8% 인상된다. 지난 2018년 8월 출고가를 6~10% 인상한 지 5년만이다. 가격 조정에 따라 대형마트 기준 ‘500ml’는 480원으로, ‘2L’는 1080원으로 판매된다.

생수 시장 점유율 1위 삼다수 가격 인상으로 생수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다수는 생수

시장을 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산수·동원샘물 등을 제조하는 농심·동원F&B는 현재까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반값택배’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했던 편의점 택배 운임 요금도 인상된다.

반값택배는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차량의 반자리를 활용해 일반 택배보다 저렴하게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

비스다. 일반 택배보다 1~2일 정도 더 소요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해 개인간 물품 거래에 주로 이용돼 왔다.

최근 GS25와 CU 등 국내 주요 편의점은 택배 운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U는 올해들어 국내 택배 운임을 300원씩 올렸으며, GS25는 다음 달부터 반값 택배 운임을 중량별로 200~300원 인상한다.

GS25는 500g 이하의 경우 현행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500g 초과 1kg 미만은 1900원에서 2200원으로, 1kg 이상 5kg 미만은 23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이번 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요금을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평균 5.3%, 최대 10.9%, 한진택배는 평균 3%, 최대 15.2% 인상했다. 이에 따라 GS25와 CU 등 편의점 택배 운임 요금 역시 CJ대한통운 등을 이용하는 국내 일반 택배 요금을 300원씩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류비와 집화비용 등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택배비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롯데홈쇼핑 가상인간 쇼호스트, 완판 행진

‘루시’, 명품 가방 25분 만에 완판  
31일 라방 시작으로 활동 본격화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라방(라이브방송·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한다.

루시는 롯데홈쇼핑의 가상인간 인플루언서다.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지난달 14일 루시를 라방 진행자로 명품 패션 브랜드 ‘미우미우’ 가방 4종, 카드 케이스 3종 판매 방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5분만에 준비 수량을 완판했다.

롯데홈쇼핑은 루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첫 방송의 비하인드 영상을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가 31일부터 모바일 생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본격적인 쇼호스트 활동에 나선다. /롯데홈쇼핑

공개하고, 매월 정기 방송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서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삼성물산패션부문

2535 타깃 ‘디 애퍼처’ 론칭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2535 세대를 위한 ‘뉴 클래식’ 콘셉트의 여성복 브랜드 ‘디 애퍼처(The Aperture)’를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디 애퍼처는 획일적인 오피스룩을 벗어나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세련되면서 실용적인 컨템포러리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다.

첫 번째 컬렉션의 콘셉트는 ‘빈티지 리바이벌리스트’로 정했다. ‘옛것의 부활’을 키워드로 빈티지의 멋과 맛을 살려 모던하게 재해석해 신선한 취향으로 제안한다. 특히 1990년대 각광받았던 빈티지 아이템의 실루엣, 텍스처,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아 동시대적인 감성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상품들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 GC녹십자웰빙 ‘PNT 비움 발효효소’ 선택

개인맞춤형 영양 솔루션 전문회사 GC녹십자웰빙이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 맞춤형으로 설계한 ‘PNT 비움 발효효소(사진)’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을 위해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알파아밀라아제’의 비율을 높였고, 여기에 단백질 분해효소인 ‘프로테아제’를 균형있게 설계했다.

이 제품은 14종의 과일야채 유래 발효효소를 함유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공법을 활용한 발효과정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을 높였다.



정제효소 없이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역가 수치를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효소의 원활한 흡수와 활성을 돕는 17종의 유산균 및 프락토올리고당과 영양소가 풍부한 옥수수수염추출분말, 히비스커스추출물, 사과초모식초분말 등도 함유돼 있다. 하루 1포 분말 그대로 섭취하거나 찬물, 우유,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정제효소 없이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역가 수치를 보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 하림, 소비자 요청에 ‘매콤 후랑크’ 재출시

100% 국내산 닭고기, 이전 맛 구현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추억의 ‘매콤 후랑크(사진)’를 소비자 요청에 힘입어 재출시했다.

하림 매콤후랑크는 100% 국내산 닭고기로 만든 소시지 제품으로, 2016~2019년까지 중·고등학교 매점에서 판매돼 큰 인기를 얻었다. 단종 이후 ‘하림 고객의 소리’뿐만 아니라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출시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하림은 쉬는 시간 매점으로 달려가게 했던 매콤후랑크 소시지를 다시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하림 ‘돌아온 매콤후랑크’는 100% 국내산 닭고기에 맞는 매콤함이 더해진 그때 그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소시지에 꼬치를 꽂아 더 편리해졌으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패키지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돌아온 매콤후랑크’는 26일부터 전국 CU와 GS25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재출시 기념 ‘1+1 프로모션’도 진행해 그때 그 가격 그대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은 2000원이다.

하림 관계자는 “매콤후랑크 재출시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맛을 그대로 구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창시절 추억의 간식을 기억하는 소비자는 물론 뉴트로에 열광하는 Z세대에게 추억의 감성을 소환하는 제품으로 폭넓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SPC삼립 “사랑스러운 포켓몬빵 만나세요”

러블리 시리즈 신제품 선보여

SPC삼립이 발렌타인&화이트데이 시즌을 맞이해 ‘포켓몬빵 러블리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제품은 분홍빛 쿠키 속에 고소한 호두와 크랜베리, 초코 브라우니를 넣은 ‘빼빼의 크랜베리넛츠 브라우니’와 달콤한 브라우니와 상큼한 레몬 초콜릿을 토핑한 타르트 ‘피츄의 달콤상콤 타르트’, 꾸덕한 초코 브라우니에 달콤한 생크림과 건조 딸기 다이스를 장식한 ‘넵피아의 딸기콧콧 초코 브라우니’가

지 디저트 3종이다.

제품에는 시즌 한정 ‘러블리 포켓몬 피부셀’ 3종이 랜덤으로 동봉되어 있어 특별한 재미를 더했다. 신제품은 편의점, 슈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SPC삼립은 출시를 기념해 오는 29일까지 SPC삼립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신제품 리그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게시글을 공유하고 선물하고 싶은 신제품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러블리 포켓몬 피부셀 3종(5명)’을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Enjoy Your Life

유럽제품 을 안방에서 즐기다

COCOSBAY

NAVER

코코스베이



COCOSBAY

<https://smartstore.naver.com/cocosbaygmbh>



**현대제철, 걸음기부로 장애 어린이 보조기기 기증**  
현대제철은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포항, 당진, 순천, 울산 등에 거주 중인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유모차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제철 김형창 지속가능경영팀장(왼쪽)과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가운데)가 기증 전달식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제철



**중진공, 수출 지원 '해외거점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해외거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앞줄 왼쪽에서 7번째)이 해외거점 파견자 등 임직원들과 함께 26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동구바이오제약, 라오스 LVMC홀딩스와 '맞손'**  
동구바이오제약은 LVMC홀딩스와 한국 내수의 전략적 허브와 라오스의 건강한 미래와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제약 선도 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진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서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앞줄 가운데 왼쪽)와 오세영 LVMC 홀딩스 대표(앞줄 가운데 오른쪽)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DGB대구은행, 대구경북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황병우 DGB대구은행장(가운데)이 대구광역시 수성동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지사에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7000만원을 전달하고 포즈를 취했다. 이번 전달한 특별회비는 재해 및 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KCC,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7억 기부**  
KCC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7억원을 기부했다. KCC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회관에서 김상준 KCC 상무, 황인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은 KCC의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 지정 기탁되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나눔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CC

#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 약속한 'GXP 1기' 성료

**해외에서 5주간 업무경험  
구성원 글로벌 역량 제고**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글로벌 경험을 마무리했다. 노하우를 회사 경쟁력 제고에 활용할 예정,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유연한 업무환경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26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구성원 12명이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GXP)'을 마무리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GXP는 '참가자 스스로 설계하는 해외 일 경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가 세계 각국에서 5주간 자사와 해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업무 환경 시공간 제약 없이 고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일



박정호 부회장은 지난해 3월 SK그룹 편입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유연한 업무환경을 약속, GXP 프로그램으로 현실화했다.

수 있다는 복안이다. 박정호 부회장이 지난해 업무환경 확대를 약속하며 이를 구체화했으며, 선순환을 통

해 기업 문화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회사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후 '글로벌 거점 오

피스'로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SK하이닉스 해외 법인뿐 아니라 랩리서치, 미국 법률사무소 WPA, 독일 광학 기업 칼자이스 등에서 근무했다. 경험을 통해 경쟁력을 쌓고 해외 파트너와 협업 및 교류 기회도 가졌다.

SK하이닉스 Competency Planning팀 최진화 TL은 "참가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업무 경쟁력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글로벌 업무 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등 풍성한 경험을 쌓았다"며 "향후 GXP는 초(超)협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과 동시에, 당사의 업무환경을 해외로 확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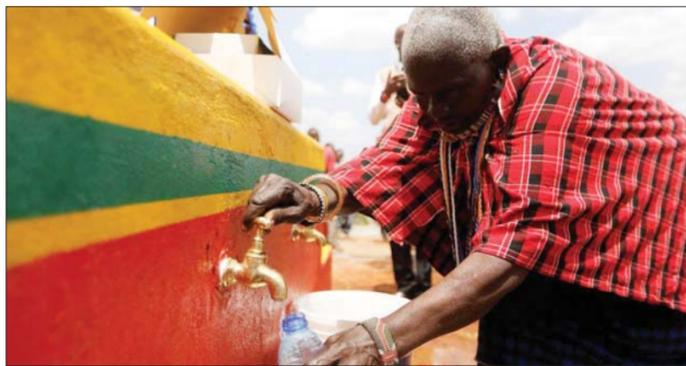
## 의료봉사·식수공급 등... BBQ치킨, 아프리카에 사회공헌

**'아이러브 아프리카' 기부금 전달**  
지난해 2.6억, 총 누적 19억 달해

치킨 프랜차이즈 그룹 제너시스 BBQ가 '아이러브 아프리카' 활동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BBQ는 본사와 패밀리(가맹점), 소비자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아이러브 아프리카'로 전달한 기부금 총액이 2018년부터 약 19억원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BBQ는 2018년 9월, 국내 최초 아프리카 전문국제구호개발비정부기구 사단법인 아이러브아프리카와 손잡고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고 있다. 기금은 고객이 치킨을 주문하면 본사와 패밀리가 1마리 당 10원씩 적립하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모인다. 작년 한 해 누적 금액은 총 2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진3] BBQ치킨\_케냐 카지아도 나망카 응가타타의 주민들이 식수 우물 개발을 기뻐하며 식수를 받고 있다. /제너시스 BBQ

BBQ는 기금을 통해 아프리카 동부 케냐의 나이로비 지역 슬럼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펼쳤다. 주요 활동으로는 오염된 물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우물 개발과 물탱크 설치 사업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재봉틀 지원 및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고아 돌봄·육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의료보건 개선사업으로는 무랑카 카운티 지역 키레레 초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모래벼룩(Jigger) 퇴치 봉사를 펼쳤다. 또 아이들이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발과 슬리퍼를 제공하고, 축구공 및 축구 유니폼 세트를 선물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기아, 누적 4000대 판매 권영일 오토컨설턴트 25번째 '그랜드마스터'

기아에서 25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탄생했다. 지난 19일 24번째 그랜드마스터가 탄생한지 일주일여 만이다.

기아는 서울 마포지점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사진)가 누계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 마스터'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에서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우수 영업직원에 게만 주어지는 영예다.

권영일 선임 오토컨설턴트는 1993년 기아에 입사해 30년 동안 실적을 쌓으며 연평균 133대, 누계 4000대를 판매해 25번째 그랜드 마스터에 등극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백, '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 진행

현대백화점이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수거해 금속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31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6개 점포 사은데스크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한다.

휴대폰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수거된 휴대폰은 재활용 전문업체로 보내져 파쇄 후 금속자원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는 휴대폰 1대당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포인트 2000 포인트를 증정하며, 1인당 최대 3개의 휴대폰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또 수거된 휴대폰 1대당 1000원씩 기부금을 조성해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2회차 행사를 진행하고,

올 한해 최소 6회 이상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백화점이 운영 중인 업계 유일의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의 일환이다.

365 리사이클 캠페인은 현대백화점 전 점포에서 진행되는 자원순환 캠페인이다. 고객으로부터 의류·잡화 등 물품을 상시로 기부 받아 친환경 용기 및 쇼핑백 제작 등에 활용하는 친환경 활동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8여 만명 이상의 고객이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참여해 20여 만점 이상의 기부 물품과 60여만개 이상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이상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상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 조영숙 ◇과장급 개방형직위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재배환경과장 박항미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디지털혁신과장 정강은 △기술개발과장 이정훈 △지역성관과장 이왕재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이세형

◆**NH투자증권** ◇상무 신규선임 △Global FI본부장 이성호

## 부음

▲박삼순씨 별세, 정보석(배우)씨 모친상 = 26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장지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02-1522-7000

▲민복순씨 별세, 김중원(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씨 모친상 = 26일, 은

평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2-2030-4444

▲김덕자씨 별세, 배동기(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실장)·동진(부산일보 서울경제팀장·한국자동차기자협회 감사)·숙이·현정씨 모친상, 이두만(에이플러스에셋 전 전무)·안창식(폴앤키아라안경 대표)씨 장모상 = 26일 오전,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8일 오전 9시. 053-200-6464

▲이성훈(전 JW중외제약 부회장)씨 별세, 탁정자씨 부군상, 이우석(크로스홀딩스 대표이사)씨·이유상(디오메오 대표이사)씨·이유찬(이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 = 2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선산. 02-2227-7500

▲임형두(SBS 사우회 초대회장)씨 별세, 김동순씨 남편상, 임미경·임연수씨 부친상, 김기정씨 장인상 = 2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45분, 장지 서울 추모공원(충북 진천 선영). 02-2258-5940

# 이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차 상 근 의  
관망과 혼수

이슈우화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쥐들의 이야기가 있다. 매일 고양이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그 소리를 듣고 쉽게 도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고양이의 목에 누가 나서서 방울을 달지를 놓고는 모두 몸을 사렸다. 묘수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의 비겁함을 꼬집는 이야기다.

국민연금 개혁문제는 근 25년째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비유되는 핫이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 민감한 연금개혁을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국정과제로 올리며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정치적·사회적 파급력 때문에 긴가민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988년 출발한 국민연금제도는 수급자 부담률인 보험료율이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렸으나 1998년 9%까지 늘어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꾸준히 연금개혁안을 논의했

다. 주된 쟁점은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리고 연금수급시기를 더 늦춰 연금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보험료율 평균은 우리나라의 두배인 18.3%이고 급여율(소득대체율)은 선진국 수준인 40% 선이다. 문재인 정부때에는 보험료율을 소폭 올리되 급여율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가 흐지부지됐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연금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는 출범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문제가 세계 최고수준인 근래 들어서는 더욱 주목받는 이슈가 돼버렸다. 미래에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도 연금개혁은 번번이 기득권층이나 기성세대의 반대에 부딪히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다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정권은 예외없이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프랑스도 지금 연금개혁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연금납부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통, 정유, 에너지, 교원 부문 등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해 지난 19일 1차 파업을 벌였고 오는 31일 2차 파업을 준비 중이다. 19일 파업에는 전국에서 112만명이 참가했고 지하철과 주유소 등 사회기간망이 마비됐다. 적잖은 국민들과 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 잠정결과를 내놓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금체계 재구조화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산하기관들과 전문가집단은 현 구조로는 재정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1~3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 예측을 이미 내놓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의 사회적 공론화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엇갈릴 수도 있는 연금개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처럼 연금개혁에서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때는 '동큰 한 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본시장부장 skc8472@metroseoul.co.kr

## 아끼지 않는 교육



기 지 수 첩  
신 하 은  
(정책사회부)

교육부는 올해 최초로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장에서는 값싼 교육을 공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이 교육보다는 '갓성비' 인재양성 계획의 일부가 됐다는 지적이다. 증액분 중 특히 많이 늘어난 예산 역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원 예산이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값싼 교육을 고민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경쟁교육 과열과 함께 학교 서열화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교육시장에서

공교육의 전폭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공교육의 실효성을 잃게 될 경우, 지금처럼 사립초, 국제중, 특목·자사과의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진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즉, 공교육의 미흡함을 가정이 개별적으로 충족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에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참여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7.1%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2021년에 75.5%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도 2016년 18조606억원이었던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15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소득 구간별 차이로, 2021년 월소득 300만원 정도의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700만원 가량의 고소득 가구는 54만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공교육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아낀다면 그 몫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떠넘겨진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은 어느새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 경쟁교육 과열로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아낌 없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gothe@

오늘의 운세 1월 27일 (음 1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앞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48년생 북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60년생 지는 태양은 막을 도리가 없다. 72년생 가정이 화목해야 다른 일도 잘 풀린다. 84년생 마음이 흐리니 꽃구경이 무슨 소용 이라만.



37년생 바쁜 가운데 게임을 배워보니 즐거움이 배가된다. 49년생 상대를 칭찬하면 2배로 돌아온다. 61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73년생 힘들어도 해오던 일을 계속 추진. 85년생 겸손이 미덕이니 양보.



38년생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50년생 친구의 앞날에 영향을 주는 충고를 한다. 62년생 결과만 챙기느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74년생 동료들과 등산계획을 세워본다. 86년생 초대 받아 기쁘나 이로운 일은 없다.



39년생 빗방울이 떨어지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51년생 학수고대하던 문서에 도장을 찍는 날. 63년생 소피 호랑이띠와의 거리가 유익. 75년생 공부와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87년생 직장에서 업무가 홍일점(紅一點)이다.



40년생 모처럼 지인들과 가차로 여행을 가본다. 52년생 시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64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을 바라지 마라. 76년생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에 신경 써보자. 88년생 인내의 끝이 보이니 조금만 더 노력.



41년생 굴이 깊을수록 산도 높은 법이니 힘을 내서 도전. 53년생 남의 도움에 고마움을 표시. 65년생 핑크보라색이 행운을 준다. 77년생 어려움이 곳곳에 있으니 심호흡을 하고 길을 나서자. 89년생 하던 일이 뜻대로 되니 안심.



42년생 서두르지 말고 자손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 54년생 머리만 믿고 있다면 큰 낭패. 66년생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78년생 눈치 빠른 행동이 상사의 눈에 든다. 90년생 즐거운 일이 넘쳐나 허우적대는 하루이다.



43년생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운세. 55년생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다. 67년생 물 흐르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 79년생 연인의 연락을 받지만 반감지 않는다. 91년생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자신의 허물만 드러난다.



44년생 남 뒷만 하지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56년생 새로운 계약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68년생 황제은은 화중지병(花中之餅)이니 성실하게. 80년생 명석이 깔려도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92년생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



45년생 자식의 형편을 살피고 도움을 줘라. 57년생 발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69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쁘다. 81년생 선물리 시작하지 말고 많은 준비를 하라. 93년생 집안 농사짓는 땅에서 풍년이 되길 기원 드린다.



46년생 사람 만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성과가. 58년생 일이 어려워도 풀어나갈 운. 70년생 돈을 벌며 집이 생기니 이따나 좋을까. 82년생 어چه 결정할 일을 오늘 반복할 일이 있다. 94년생 좋은 일이 뜻대로 되어 가슴 벅차다.



47년생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날. 59년생 반대에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71년생 밑 빠진 독에 물붓기하고 있는 상태. 83년생 기도받음대로 이루어지지 부모님께 감사. 95년생 문전옥담(門前玉童)도 가꾸어 놓아야 기름지다.



## 김상회의四季 사주학의 풀이 ⑧

소천素天의 금기金氣가 지나가는 항구 저 묘鼻 필뿔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을乙과 경庚이 해당하므로 을과경이 합하여 금금이되고 을과경의 해에는 금기金氣가 먼저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현천玄天의 수기水氣가 지나가는 장張 익뿔 누屨 위뿔의 네 별자리는 24방위에서 병丙과 신辛이 해당하므로 병과신이 합하여 수수가되고 병과신의 해에는 수기水氣가 먼저 생겨 그해의 운기를 주관한다. 자편진전에서 논하길, 천간의 합수와 화화는 음陰과 양陽이 만나 형성된다.

하도河圖의 수數는 1,2,3,4,5를 6,7,8,9,10과 배합하여 선천先天의 도도를 형성한다. 태음太陰의 수수에서 시작하여 중기中氣의 토土에서 끝이 나는데 이 과정이 오행五行의 기氣가 상생相生하는 순서가 된다. 오행이 있기 전에 음양陰陽과 노소老少가 있었고 그 후에 기氣가 충충하여 토土를 생하니 마침내 오행五行이 된 것이다. 이상이 십천간十干이 합화合化하는 의미이다. 십천간이 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십천간이 배합하면 반드시 그 행배를 살펴봐야한다. 예를 들어 갑일주甲日主가 신금辛金 정관正官을 쓰는데 병화丙火가 투출투出하여 신금과 합하면 정관은 정관의 구실을 못한다. 갑일주가 계수癸水 인수印綬를 쓰는데 무토戊土가 투출하여 계수를 합하면 인수는 인수구실을 못한다.

갑일주가 기토己土 재성財星을 쓰는데 다른 곳에 갑甲이 또 있어 기己와 합하면 재성은 구실을 못한다. 천간합인 것 같아도 합이 되지 못하니 먼저 가까이 붙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한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서로 좋아해도 중간에 방해자가 있으면 맺어지기 힘든 것과 같다. 즉 갑甲과 기己가 합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경庚이 있으면 갑목은 경금을 뛰어넘어 기토와 합을 할 수 없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2		3		1	
		1			2
8		9	3		
			8	6	
		6			5
4	8		5		
8		1			
5				7	
	2	3	8		1

		7		4		1		
				9				
8			5		1			6
		3				7		
5	6						9	2
		9				3		
9			2		4			7
				1				
		5		8		4		

### 정답

1	6	7	9	2	8	5	3	9
5	8	2	3	9	6	7	1	5
9	3	9	5	7	1	2	6	8
6	5	1	2	9	7	8	9	7
9	7	2	8	6	9	1	5	2
2	9	8	7	1	5	2	9	6
7	2	5	6	2	9	9	8	1
2	9	9	1	8	2	6	7	5
8	1	6	9	5	7	9	2	2

1	2	7	6	8	5	9	2	9
8	9	6	9	1	2	2	5	7
2	5	7	9	2	8	1	6	6
9	9	5	8	2	1	6	7	2
2	6	8	5	2	7	1	9	9
7	1	2	9	9	6	5	8	2
9	2	2	1	5	9	7	6	8
5	7	9	2	6	8	9	2	1
6	8	1	2	7	9	2	9	5

고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15호  
일간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21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불황도 이겨낼 똑똑한 ‘밸류 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자.  
첫번째. 비싼 와인은 맛있다? 두번째. 싼 와인은 맛이 없다?  
첫번째 질문엔 ‘예스(Yes)’라는 답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친한 지인들이 맛있는 와인 좀 추천해달라고 하면 농담삼아 이렇게 말한다. “와인샵 가서 비싼거 사세요. 와인은 비싸면 맛있어요.”  
비싼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은 보장되었지만 그 가격만큼 값어치를 할지는 또 다른 문제다. 50만원, 100만원 짜리 와인을 마시면 역시 기본급 와인과는 확연히 다르겠지만 그 차이가 몇 십만원 만큼은 아닐 수 있다. 비싼 와인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보면 감탄사 만큼이나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같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 두번째 질문 역시 ‘예스’로 답할까. 의외로 ‘노(No)’라고 하는 이들이 더 많다. 이미 싼 가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성비 계산도 나왔겠지만 신대륙의 훌륭한 기후조건



/와인스펙테이터

과 나날이 발전해가는 양조기술 덕분이다. 한 상 차린 자리에 곁들이기도, 아니면 하루의 피로를 씻으려 한잔씩 훌쩍거리기에도 아쉬움이 없을 와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와인스펙테이터가 가성비 와인 가운데서도 가격 이상의 만족을 주는 ‘밸류(value)’ 와인들을 골라냈다. 100점 만점 기준에서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았고, 가격은 40달러(원화 약 5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로 수입되면 세관에 제반비용까지 더해져 가격이 좀 뛰긴하겠지만 그래도 가성비 매력은 여전하다.  
1위는 미국 나파밸리 와인으로 ‘보리우 빈야드 나파밸리 카버네소비뇽 2019’이다.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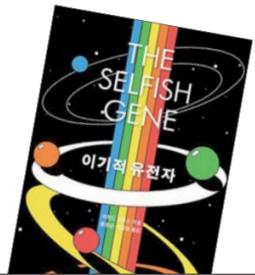
리우 빈야드는 나파밸리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유서깊은 와이너리 가운데 한 곳이다. 1900년에 포도밭을 사들이면서 시작됐으니 말이다. 전설적인 와인메이커 안드레 켈리스체프를 영입하면서 보리우 와인은 나파밸리 와인의 정석이라도 불리게 됐다. 가격은 33달러. 나파밸리의 대표품종 카버네 소비뇽이 갈수록 몸값이 올라 세자리수가 보통인 요즘, 착해도 한참 착한 가격이다. 장기 숙성도 가능해 시음적기가 무려 2030년까지다.  
2위는 ‘디코이 리미티드 나파밸리 레드 2019’로 역시 미국 나파밸리 와인이다. 지역 명을 쓰려면 최소 85% 이상의 포도를 해당 지역에서 수확해야 한다. 나파밸리의 포도값을 감안하면 30달러는 인상적인 가격이다.

말롯과 카버네소비뇽, 말벡 등을 섞어 만들었다.  
다음은 이탈리아 와인인 ‘빌라 안티노리 토스카나 2019’다. 밸류 와인 리스트라더니 와인평가들의 이름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1928년부터 생산된 빌라 안티노리는 산지 오베제와 카버네소비뇽, 말롯 등으로 만들었다. 2019년 빈티지가 90점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마트에서 2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스페인 와인도 이름을 올렸다. ‘보데가스 마르케스 데 무리에타 리제르바 2018’이다. 무리에타 와이너리의 철학이자 목표인 ‘우아함, 신선함,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와인으로 평가받았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조엘 고트 캘리포니아 소비뇽블랑 2021’이, 스파클링 와인으로는 ‘뎀 나파 브뤼 프레스티지 NV’가 뽑혔다. 가성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르헨티나 와인으로는 ‘도메인 부스케 말벡 2021’이 13달러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켄달잭슨 소노마 카운티 빈트너스 리제르바 말롯 2019’, ‘몬테니아 윌라메트 밸리 피노누아 2019’, ‘조셉 드루앙 보통 샤블리 2020’ 등이 최고의 밸류와인으로 10위 안에 들었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성공한 유전자의 ‘비정한 이기주의’

몸집이 작은 새들은 독수리나 참매 같은 사나운 맹금류가 서식지 주변을 맴돌면 독특한 ‘경계음’을 낸다. 포식자는 소리를 낸 새를 쫓고, 근처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무리들은 사냥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달아난다. 일별은 꿀도둑에 침을 쏘 먹이를 훔쳐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침입자를 공격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내장이 침과 함께 빠져 얼마 안 가 죽게 된다. 톰슨가젤은 표범이나 치타가 무리를 향해 다가오면 경중경중 뛰는 도약 행동을 한다. 이는 위험에 처한 동료들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뛰는 행동으로 포식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돌리는 효과가 있다.  
‘이기적 유전자’는 위에서 열거한 이타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모두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유전자가 만들어 낸 생존기계이고,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존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래밍 로봇 운반자라고 주장한다. 성공한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건 ‘비정한 이기주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 따르면, 매를 발견한 새가 경계음을 내는 건 혼자 숨었을 때의 이익이 크지 않아서다. 동료 중 하나가 포식자의 눈에 띄면 자기를 포함한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무리를 이탈해 홀로 도망가면 군집 생활의 이점을 잃게 된다. 고로 경계음을 발산하지 않으면, 그 개체는 자신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일꾼이 행하는 자폭행위도 결국 같은 유전자



####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지음/홍영남, 이상임 옮김/울유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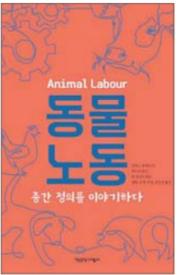
를 가진 다른 개체를 보호함으로써 유전자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임인 일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이 낳는 개체(여왕벌)를 사육한다. 일꾼들은 번식 개체를 조종해 그가 일별의 몸속에 있는 유전자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게 만든다. 침입자에게 침을 쏘 죽더라도 그 유전자는 보존되기에 일별은 자살을 통한 자기희생에 망설임이 없다.  
톰슨가젤의 높이뛰기도 실은 이타주의와 관계가 멀다. 자신을 노리는 표범에게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는지 과시함으로써 사냥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일깨워 포식자가 다른 사냥감을 노리게 하려는 가젤의 전략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저자는 “어떤 집단의 개체들이 선견지명이 있 기만 하다면, 이기적 욕망을 억제하고 집단 전체의 붕괴를 막는 것이 중국에는 자기들의 최대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632쪽. 2만원. /김현정 기자 hjk1@

### 동물노동

살렛 E. 블래너 외 13명 지음/책공장더불어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동물노동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다. 동물을 도구나 자원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동물을 노동자로 인정하면 그들의 지위가 올라갈까? 약자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속의 노동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착취와 소외를 가져온다. 책은 노동이 적절하게 규제되면 동물이 노동을 통해 복지를 누

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무엇이 노동이고 누가 노동자인지에 대한 모든 편견을 뒤엎을 수 있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400쪽.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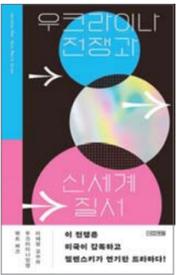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이해영 지음/사계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장 해제와 나치즘 제거, 동남부 지역의 주민 보호를 목표로 하는 ‘특수 군사작전’을 명령했다. 러시아군은 키예프와 하르코프,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핵심 시설물에 미사일을 떨어뜨렸고, 북부·남부·동부 세 방향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책은 이 전쟁이 미국이 감독하고 젤렌스키가 연기하는 드라마라고 주장한다.

냉전은 끝났고 소련은 지상에서 사라졌으며 푸틴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네오콘은 자신들의 계획표에 의해 공산주의 소련의 빈자리를 민주주의 러시아로 바꿨다는 것이다. ‘적이 저기에 있다고 외치는 자가 바로 적’이라고 책은 말한다.  
336쪽.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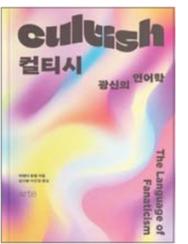


### 컬티시

어맨다 몬텔 지음/김다봄, 이민경 옮김/아르테(arte)

왜 말쑥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사기, 음모론에 빠져들까.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이유는 뭘까.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사람들이 해시태그로 그날의 운동을 인증하며 함께 자기관리를 숭배하게 하는 동력은 뭘까. ‘컬티시’는 사람들을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추종자로 사로잡는 ‘컬트’ 언어의 비밀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

는 사이비 종교, 다단계 마케팅 회사, 뷰티·피트니스 산업과 SNS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꿈꾸는 자들의 희망을 착취하는지 낱낱이 까발린다. 344쪽. 2만4000원. /김현정 기자



## BS100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수도권 대설특보...항공기 175편 지연 /사진 뉴시스
- ▲ 검찰, ‘김치코인 부정거래 의혹’ 빚뚝 압수수색

- ▲ 경실련,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 안내
- ▲ 오세훈, 내달 2일 전장연과 단독 공개 면담



- ▲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종처벌 아냐 /사진 뉴시스
- ▲ ‘대통령선거 투표함 탈취’ 인터넷방송인 2명, 집행유예

# 교원 정원 줄이고 교권 침해까지... '이중고' 겪는 교사들

공급 부족으로 교원 업무 경감 우려 정부, 기간제교사 확대 가능성 시사 교원능력개발평가, 존재 의미 무색



대구 동구 동대구초등학교에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시스

학교 현장에서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확대를 시사해 대립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이중고가 주목받고 있다.

## ◆정원 외 기간제 확대에 미래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정원의 기간제 교사 확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 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목적이 존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

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에도 정원의 기간제 교사 확대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영속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요에 맞춰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하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 내 교사 채용은 줄어들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육 당국은 올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

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 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 직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땀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다"며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매년 반복되는 교원평가 잦음... 폐기 요구 쏟아져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매년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등 교권, 인권 침해성 답변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자유서울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

욕평가'로 불릴 정도로 존재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수준의 개선 의지를 보여 현장의 반응이 저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박사과정생도 연구비... 교육부, 9556억 투입

##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 지원 지난해 대비 예산 약 5% 증가

교육부가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를 지원하고자 각각 4172억원, 5384억원을 지원한다. 총 9556억원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문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총 1만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고,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먼저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구성됐다.

개인연구를 위해서는 학술·연구 초기 단계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예산 및 지원 과제 수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박사과정생이 국가의 핵

심 연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집단연구의 차원에서는 연구소·대학 등이 학술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인프라)을 구축·강화한다. 연구 인력의 지속적 육성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인문사회분야 융·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공분야는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대학연구기반 구축 ▲학문균형발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신하은 기자

# 서울물연구원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 개발

## 입상활성탄 세척 정도 판별

서울물연구원은 수도물 생산과정 중 입상활성탄(숯) 품질관리에 필요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이 개발한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는 입상활성탄의 세척 정도가 적정인지를 빛을 통해 자동 판별할 수 있는 기기다.

현재 서울시는 수도물 원수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맛·냄새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산화력이 강한 오존으로 소독하고 흡착력이 강한 '입상활성탄(숯)'으로 거르는 '고도정수처

리' 공정을 실시하고 있다.

활성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역세척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물속에 가라앉은 활성탄이 물 위로 떠오르는 정도를 '팽창률'이라고 한다. 팽창률을 20~40% 범위로 유지해야 활성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물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낙상, 소독용 잔류 오존가스 노출로 인한 안전 문제가 있었다"며 "활성탄 팽창률 자동 측정장치는 엘이디(LED) 센서로 활성탄 내 빛의 투과도를 측정해 팽창률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수행기관 모집

## 전국 최초 청년금융지원 정책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

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

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0 | 해질 / 17:50

1월 27일(금) / 음력: 1월 6일

수도권 날씨: -9 ~ -5°C

운동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빨래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세차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외출 지수: [바탕화면 아이콘]

지역별 날씨: 연천 -13/-6, 동두천 -12/-5, 가평 -12/-5, 파주 -13/-6, 서울 -9/-5, 양평 -11/-5, 수원 -8/-4, 용인 -8/-4, 평택 -9/-4, 백령도 -6/-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中내각 국무원 '역대 최대 규모 물갈이' 예상  
▲바이든, 우크라이에 첨단 전투용 전차 31대 지원 /사진 뉴스시스

▲미국·독일 지원 탱크, 게임체인저 될까  
▲정부, 개도국에 3년간 11.7조 지원 추진



▲中, 코로나19 사망자 대폭 감소... 병원 사망자 79% ↓ /사진 뉴스시스  
▲일본 정부, 정보수집위성으로 北 군사 시설 감시



[라이프]  
비타민·콜라겐  
간편하게  
내 몸 지키는 '한입'  
너



Life

[라이프]  
식음료  
편의점택배  
가격 줄인상  
L2



# 1등급 천연재료만 담은 1등 세럼 “잡티 지우개”로 피부고민 싹 지우세요”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아이소이 '잡티세럼'

10년여간 세럼부문 1등 기록한 스테디셀러  
기미·붉은 톤에 효과... '잡티세럼' 별명  
불가리안 로즈 오일 등 천연재료 사용해  
비건화장품 인증, 피부 무자극 판정 획득  
건성용 제품, 잡티패드 등 후속상품 개발

수많은 화장품이 다양한 별명을 가졌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상품은 많지 않다. 그 속에서 아이소이의 '잡티세럼', 블레미쉬 케어 업 세럼은 10년여 간 1등 자리를 지키며 못사람들에 별명을 각인하는 데 성공한 제품이다.

잡티세럼은 착한 성분을 향한 브랜드 철학과 빠른 피부 개선 효과를 전하는 아이소이의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지난 2009년 출시돼 2021년 3월 새롭게 리뉴얼됐다.

한 시절을 흥미하고 지나가는 화장품이 많고 또 많지만 잡티세럼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2009년도 후기부터 2023년 올해 후기까지 이어진다.

'블레미쉬 케어 업 세럼'이 특별히 잡티세럼 또는 흔적세럼으로 불리는 데에는 출시년도부터 이어진 이용자들의 간증이 있다.

출시 후 100일이 되지 않아 시장에서 심상찮은 반응이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업 세럼과 10년간 1등 기념 한정판 세트. /아이소이

감지됐다.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던 붉은 톤이 사라졌다”는 입소문을 시작으로 기미와 붉은 톤에 확실한 효과를 가졌다며 ‘잡티세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신생 브랜드였던 아이소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에 잡티세럼이 역할을 했다.

천연화장품이라는 점도 시장의 호응을 끌어냈다.

아이소이의 대표 이진민 대표는 ‘선영아 사랑해’ 등 누구나 기억하는 유명 광고 카피들을 만들어내던 능력 있는 카피라이터였다. 오랜 세월 환절기면 물세수조차 힘들 정도로 심한 아토피 증상으로 고생한 이 대표는 자연스럽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순한’ 화장품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 유기농 화장품 ‘로고나’를 알게 된 후 바로 천연화장품 사업에 뛰어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은 물론, 프랑스의 수녀원, 네덜란드 시골까지 발로 뛰었다. 노력의 결과가 잡티세럼이다.

잡티세럼은 화장품 원료로 쓰는 불가리안 로즈 오일은 불가리아에서 재배한 장미 3000 송이를 끓이고 식히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겨우 1ml를 얻을 수 있는 원료를 쓰고 있다. 원재료 수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 가격이 100만 원에 달했다.

아이소이는 오일 등급을 2, 3등급으로 낮추는 대신 1등급 재료를 고집하며 선주문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채널을 제한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료 변화 없이 10여 년 생산을 이어왔다.

우직한 고집에 잡티세럼은 지난해 12월 올리브영 세럼부문에서 10년간 1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글로벌 메거진 나일론(NYLON) 2022 K-뷰티 어워드에서 재구매 의사 1위도 차지했다.

다양한 인증도 거쳤다. 국내 비건인증기관 1호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화장품 인증을 완료했고 임상실험을 통해 피부결, 투명도, 톤케어 효과를 인정받았다. 천연재료만을 사용하는 만큼 피부자극 테스트 결과 무자극 판정도 획득했다.

아이소이는 잡티세럼을 리뉴얼 하는 것은 물론 효과를 이어가는 후속 상품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잡티세럼은 지난 2021년 리뉴얼했으며 건성 피부를 위한 건성용 제품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

미백기능성 패드 제품으로 잡티세럼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잡티패드(블레미쉬 케어 패드), 국소부위 케어를 최적화한 미백기능성 스팟 제품인 잡티스팟(블레미쉬 케어 스팟)이 잡티세럼의 뒤를 잇고 있다.

이동욱 아이소이 전무는 “아이소이의 착한성분과 확실한 효과에 대한 고객분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며 올해도 올리브영 판매 1위를 기록했다”며 “아이소이의 고집스러운 성분철학에 공감하고 함께 응원해주는 고객님들이 있어 가능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우리의 피부는 물론, 지구환경에도 이로운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BS2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리그2, 3월 막 올린다...13개 구단 경쟁  
▲토틸넘, '양발 윙어' 단주마 영입...손흥민 위기 오나 /사진 뉴시스

▲서울역사박물관, '100년 전 선교사의 서울살이' 펴내  
▲문화재청, '제5로 직봉' 봉수유적 사적 지정 추진



▲해외여행 회복세...“지속 가능 여행대세”  
▲서울예술단 일본 진출...창작뮤지컬 해외 초연 /사진 뉴시스